Weekly 공감
2010.09.08 No.76
gonggam.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p33~57
'문화복지 대한민국'
중점기획 우리 강 제 모습 찾기 p19~32
한·페루 FTA 타결 의의 p8~9
추석맞이 서민물가 안정 총력 p12~13

스피드가 몰려온다!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0 FORMULA 1 KOREAN GRAND PRIX

10월 22 ~ 24일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Oct. 22~24 Korea International Circuit

티 켓 구 매 · 온라인 : **www.koreangp.kr, 인터파크, 티켓링크**

문화예술의 본질은 ‘나눔’

박정자 연극배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연극배우로 48년을 살았다. 이렇게 오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관객’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극은 작품과 배우만 가지고는 이뤄질 수 없는 예술이다. 작품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관객이 없다면 연극은 살아 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술은 이처럼 나눔과 소통의 장(場)이다. 함께 모여 예술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나눔추진단 단장으로 일하면서 예술을 통해 봉사를 펼치는 많은 예술인들과 함께 산골 마을과 낙도 지역, 군부대와 교정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연하고, 책과 시를 배달하고 낭송하며,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하면서 예술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문화 나눔 체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예술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은 것은 문화 나눔 대상자뿐만 아니라 동참했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데 예술가들을 지탱하는 것은 그와 다른 가난함, 다시 말해 정신적 가난함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온전히 내 것을 버리는 영혼의 가난함,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 예술을 빚어내는 생산적인 가난함. 이런 가난함들이 예술가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창조한 예술을 다른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돌아서면 다시 시작되는 이 끝도 없는 가난함에서 예술가들만이 누리는 ‘행복한 가난함’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가들의 가난함을 완성하고 온전히 빛내주는 자리가 바로 예술로 나누는 문화복지란 이야기다.

이처럼 문화와 복지는 멀리 있지 않다. 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 자체가 ‘나눔’이다. 복지 역시 ‘나눔’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눔’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문화복지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복지는 나눔이 필요한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더 많이 전해주는 동시에 예술가들이 예술적 나눔을 더 기쁘고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이뤄진다.

이제 예술가들이 더 큰 기회를 얻고 더 다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예술가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이 길로 들어선 순간 그 나눔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의 힘을 믿은 김구 선생의 명언으로 글을 마친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백범일지〉 중에서) G

Weekly
2010.09.08
No.76(통권 177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장애인들로 구성된 '쿵따리유랑단'을 이끌고 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찾아다니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강원래 클론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 조영철 기자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9.0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실천
'문화복지 대한민국'

시골 읍내 허름한 영화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꼬마가
세계적 영화감독이 되어 귀향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보듯이 자라나는 아이에게 문화적 경험은
미래를 꿈꾸는 씨앗이 됩니다. 어른들에겐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생활 속 느낌표가 문화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 않듯이 소득만 높고 품격과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문화복지국가 대한민국입니다.

20

중점기획 **우리 강 제 모습 찾기**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5호(9월 1일자) 기획특집 '우리 경제 희망, 中企·소상공인'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국가발전의 원동력!"

"'표지 이야기' 속 청년들의 환한 얼굴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겨루는 젊은 창업자에게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책이 큰 힘이 된다는데, 앞으로 지원책을 더 늘리기로 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덕분에 한국에도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맨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_이환수

"소상공인에게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수시로 점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장사가 안돼서란다. 결국 준비도 없이 무작정 도전했다는 것인데, 창업을 하기 전 자신에게 맞는 업종이 무엇이고, 그 업종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기본이다.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성공을 이뤄내야 국가경제가 탄탄해진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돕도록 하자." _유명희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SSM 대비해야"

"손만 뻗으면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에서 창업 준비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도움을 준다니 절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네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점이 바로 재벌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키우고 있는 슈퍼슈퍼마켓(SSM)의 확산입니다. SSM이 입점하는 지역의 상권은 금세 붕괴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까지 해야겠습니다." _홍경석

75호 '포토 뉴스/ 포스터로 보는 한국사 1백 년'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시대상을 알리는 '한국 포스터디자인 1백 년' 전이 열린다니 반갑네요. 어릴 적에 봤던 서울올림픽 심벌 호돌이 포스터부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한미연합군 안전 포스터까지 모두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이번 주말엔 역사문화공원을 찾아 새로 단장한 동대문도 둘러보고 포스터 전시회까지 구경하고 올까 해요." _김미진

75호 '이슈/ 볼리비아와 리튬자원 개발 협정 체결'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볼리비아가 세계 리튬의 절반가량이 매장돼 있는 에너지 강국임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엔 반드시 리튬과 같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볼리비아 주변국과도 더욱 활발한 외교와 무역이 양수겸장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_casj007

기술·지식·IT 융용 등 3대 유망 분야
청년 창업자 3만명 양성

"양국관계는 이익관계 넘어 신뢰관계"

알립니다

‘한국어지식대사전’ 이름 지어주세요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인 ‘한국어지식대사전’(가칭)의 명칭을 공모한다. 이 사전은 생활용어, 방언, 전문어뿐 아니라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위키피디아 방식의 디지털 사전으로 2012년까지 1백만 어휘를 수록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지원 가능(출품작 수 2개 이하)
접수 기간 | 9월 27일 오후 6시까지
응모 방법 | 응모 양식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통해 제출(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
수상자 발표 | 10월 8일(금) 예정.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내용 | 대상(1점) 1백만원, 금상(1점) 50만원, 우수상(2점) 각 25만원 등 상장 및 상금 수여 예정
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 ☎ 02-2269-9753 korean.go.kr/dname

농촌 전통문화자원에 담긴 이야기 보내주세요

농촌 전통문화의 품격과 전통성을 재조명하고 전통지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전통문화자원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중한 경험이나 사례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 | 농촌 전통문화자원에 담긴 우리 생활 이야기
공모 분야 | 수기, 포토 에세이, 사용자손수제작물(UCC) 등 3개 부문 문화콘텐츠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
접수 기간 | 10월 31일까지
응모 방법 | 응모 양식을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공모전 담당자 앞
수상자 발표 | 11~12월 중 개별 통지
시상 내용 | 대상(1명) 1백만원, 최우수상(6명) 각 50만원 등 총 55명에게 상장 및 상금 수여 예정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031-299-2676 tradition.rda.go.kr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1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강의 원줄기로 흘러들거나 원줄기에서 갈려 나온 물줄기. 지류. “4대강, ○○까지 정비해 해양오염도 막는다.”
4. 삼국 가운데 주몽이 세운 나라. 광개토대왕 때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요동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했죠.
5. 병이나 상처 등을 잘 다스려 낫게 하는 것. “강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은 강을 OO하는 것이다.”
6.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람회. “광주OOOO가 9월 2일 개막했다.”
9. 대나무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세 로

2.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더 맑아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르는 말이죠.
3.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5. 잘 손질하여 모양을 내거나 무슨 일을 실속 이상으로 꾸미거나, ‘치러내는 일’ 또는 ‘겉으로만 꾸미는 일’의 뜻을 더하는 말. 손님OO, 인사OO.
7. 경기, 경연 따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명부. 참가자, 참가자 명단.
8.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Weekly 공감〉 74호(8월 2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미풍양속 **3** 금강 **4** 산울림 **7** 날목 **8** 희망홀씨
세로 1 미소금융 **2** 속리산 **5** 울돌목 **6** 선망 **7** 날씨

〈Weekly 공감〉 74호 ‘공감 퍼즐’ 당첨자

문화순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방은숙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이선숙 ·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이종인 · 경북 안동시 용상동
천봉기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스타 홍보대사 초대석

'빚'을 '빛'으로 바꾸겠습니다

김나운 신용회복기금 홍보대사

2008년 8월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쌓여가는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는 〈쩐의 전쟁〉이라는 TV 드라마의 영향으로 악덕 대부업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던 때였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 그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신용회복기금 홍보대사 활동을 벌써 3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홍보대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20퍼센트 이상의 고금리를 평균 12퍼센트의 은행권 대출이자로 낮춰주는 전환대출 업무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를 업은 30대 후반 여성이 제 앞으로 다가와 삶의 넋두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 남편과 중식당을 경영해 잘살았지만 손님이 점점 줄고, 재료값마저 살 돈이 없게 되자 급한 대로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남은 건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빚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까지 집을 나가 행방을 감췄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돌보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지하철 무가지 광고를 보고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연리 48퍼센트로 1천5백만원을 빌린 그는 전환대출을 통해 이율이 11퍼센트로 줄어 매달 60만원씩 물던 이자를 13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내와 이혼 후 근육이 굳어가는 병을 치료하다 연체된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강 씨 아저씨,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고민하던 대학생 최 군, 남편의 회사 부도로 생활비를 위해 썼던 카드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던 양 씨 아주머니….

그들의 힘든 인생에 희망의 끈을 연결해주면서 우리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때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국민도 낙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겨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우리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더 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 · 김나운(탤런트)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전경욱 경기 평택시 안중읍

1. 매호 소개되고 있는 '디딤툰-글로벌 에티켓'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점과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심오한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거든요.

2. 풀뿌리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 시행의 결과물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 재해 예방 시스템 및 태풍 재해 종합대책을 정보성 기사로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미애 대전 중구 태평동

1. '이슈-볼리비아와 리튬자원 개발 협정 체결'을 읽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걸음 앞선 외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 품질 경쟁력 면에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각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흐뭇합니다. 이를 계기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세계에 선보여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강소기업에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뒀으면 합니다. 대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서민경제를 이끄는 것은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중소기업이니까요.

3.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소개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8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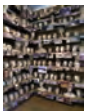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공정한 사회, 문화복지 대한민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010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10000 LIVES

GWANGJU BIENNALE 2010

만인보 10000 LIVES

만인보 10000 LIVES

GWANGJU BIENNALE 2010

2010. 9.3 — 11.7

2010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0 2010.9.3-11.7 WWW.GB.OR.KR

장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양동시장
GWANGJU BIENNALE HALL,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FOLK MUSEUM, YANGDONG MARKET

주최 / 주관 .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 2길 211
GWANGJU BIENNALE FOUNDATION 211 BIENNALE 2 GIL BUK-GU GWANGJU 500-070 KOREA
TEL +82(0)62.608.4114 / FAX +82(0)62.608.4219 / WWW.GB.OR.KR / biennale@gb.or.kr

만인보 10000 LIVES

만인보 10000 LIVES

G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2010 광주비엔날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가운데),
마르틴 페레스 통상관광부 장관(왼쪽)이 밝은 표정으로 한·페루 FTA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페루 FTA 협상 타결

10년 내 교역 품목 관세 철폐

한국과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양국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품목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한국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출에서, 페루는 농수산물 교역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 등 우리 농어촌에 민감한 품목은 시장 개방에서 제외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은 8월 30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3월 양국이 첫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표는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페루 양측은 상품, 무역규제, 위생 및 검역(SPS),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25개 분야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했다"고 공표했다.

쌀·고추·마늘 등 1백7개 품목은 시장 개방 제외

이번 FTA 협상 타결로 향후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수출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FTA를 맺은 두 번째 중남미 국가인 페루는 한국과의 농수산물 교역에서 수출 증대를 기대하게 됐다.

페루 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페루 관세율

9퍼센트)와 관련해 대형차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 내, 기타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우리의 대(對)페루 자동차 수출 규모는 연간 9천7백만 달러로, 전체 대페루 수출 총액 중 가장 큰 비중(16.2퍼센트)을 차지하고 있다.

페루 측은 이 밖에도 컬러TV(페루 관세율 9퍼센트)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세탁기(17퍼센트)는 4년 내, 냉장고(17퍼센트)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의 수출 규모는 컬러TV 9백90만 달러, 냉장고 2백63만 달러, 세탁기 25만 달러다.

이번 FTA 협상에서 페루 측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오징어에 대한 우리 측 관세(10~22퍼센트)는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이 큰 냉동·조미·자숙(삶은) 오징어는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에 철폐한다.

또 우리로서는 수입이 불가피한 항목인 커피 관세(2퍼센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아스파라거스(20~27퍼센트)는 3년 내, 바나나(30퍼센트)에 대한 관세는 5년 내에 철폐한다.

'민감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우리 통상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양허(시장 개방)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백7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여타 2백2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관세 철폐 항목으로 돌리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급식 조달 예외 조항'에도 합의해 학교 급식용 식재료 구매에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양국의 관세 감축으로 자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대우(MFN·통상 등에서 여느 외국보다 유리한 대우 부여)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녹두, 팥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도 도입했다.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은 9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간 법률 검토작업 등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뒤 11월쯤 가서명이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초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페루 간 교역 규모는 15억6천만 달러(2009년 기준)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의 9번째 교역국이다. 교역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페루는 최근 5년간 중남미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연, 주석, 납, 금, 은, 동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한편 이번 한·페루 FTA 타결을 계기로 정부는 콜롬비아, 멕시코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미 국가와의 FTA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협상이 시작된 한·콜롬비아 FTA는 지금까지 3차례 협상을 가졌고 오는 10월 제4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또 2008년 6월 제2차 협상을 마친 뒤 소강상태에 빠졌던 한·멕시코 FTA도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곧 추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한·페루 FTA 협상 타결 주요 내용

구분	한국	페루
주요 협상 내용	• 상품, 무역규제, 위생 및 검역,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양국의 경제, 통상 등 모두 25개 분야 합의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현재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모두 철폐 • 관세 감축으로 자국 내 산업 피해 발생 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합의	
관세 철폐 관련	• 쌀, 쇠고기, 고추, 명태 등 한국 농촌에 민감한 107개 품목은 시장개방 제외 • 냉동·조미·자숙 오징어(10~22%)는 10년 내,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 관세 철폐 • 커피(2%)는 즉시, 아스파라거스(20~27%)는 3년 내, 바나나(30%)는 5년 내 관세 철폐	•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9% 관세 단계적 철폐(대형차 협정 발효 즉시, 중형차 5년 내, 기타 승용차 10년 내) • 한국산 컬러TV(9%)에 부과하는 관세 즉시 철폐, 세탁기(17%)는 4년 내, 냉장고(17%)는 10년 내 관세 철폐

동아DB

페루는 칠레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은 두 번째 중남미 국가다. 지난 4월 리마에서 열린 '페루 카존 국제페스티벌' 참가자들이 페루의 전통 악기인 카존을 들고 있다.

쌀 수요 초과분 전량 매입

쌀 수급 안정대책 발표… 3년간 12만ha에 다른 작목 심어 쌀 공급 억제

국내 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쌀 공급이 넘쳐난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인 쌀 재고량은 1백49만 톤. 적정 비축량인 72만 톤을 이미 77만 톤 초과했다. 공급 과잉은 수확기 쌀값 하락, 재고관리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동아DB

쌀 재고 처리와 함께 쌀 음식의 저변 확대도 안정적인 쌀 수급에 중요한 변수다. 사진은 2009 서울떡볶이페스티벌.

농림수산식품부가 8월 31일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에선 금년 수확기 시장 격리, 재고 처분 계획과 쌀 재배 면적 감축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매년 늘어나는 쌀 재고량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예상 수요량 3백92만 톤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모두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격리 예상 물량은 40만~50만 톤으로, 9월 15일 기준 작황 조사결과에 따라 우선격리 물량을 정해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격리한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다.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80킬로그램당 쌀값은 13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당월 15만1천4백12원, 그리고 2009년 수확기의 14만4천6백53원보다 낮은 수치다. 공급 과잉이 계속 이어지면 올해 수확기에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구곡 재고 처분… 2005년산 킬로그램당 2백80원에 팔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과 RPC(미곡종합처리장 · Rice Processing Complex)의 2009년산 이월 재고가 많은 점도 쌀

값 하락을 부추길 요인으로 보고, 2009년산 재고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RPC 및 임도정업체 등 민간 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2천억원 증액 시 최소 19만 톤 이상 민간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

2005~2008년 구곡(舊穀) 재고 50만 톤도 긴급 처분한다. 특히 밥쌀용으로 부적합해진 2005년산 쌀 11만 톤은 9월 초부터 실수요 업체에 킬로그램당 2백80원에 처분한다. 주정용으로는 좀 더 저렴하게 2백29원에 공급한다.

2005년산은 식품가공용(7만여 톤), 가공제품 수출원료용(1만3천여 톤), 친환경 신소재용(1만 톤) 등에 쓰인다. 다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료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

2006~2008년산 구곡과 수입쌀 중 39만 톤은 내년 초부터 가공용으로만 공급한다. 떡류, 면류, 제과류 등과 친환경 그릇, 비닐 등의 재료용이 이에 속한다.

쌀 가공 시설 운영자금 1천6백억원 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가 2005~ 2009년 재고 쌀과 올해 수요량 초과분을 대책대로 처리하면 금년 수확기 쌀값이 80킬로그램당 14만6천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보다 2천원가량이 오른 가격이다.

쌀 처분과 함께 가공식품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8만 톤 수준의 쌀가루 소비를 2012년까지 20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쌀가루용 쌀의 가격(킬로그램당 7백68원)을 밀가루값 수준(킬로그램당 3백55원)으로 인하하고, 이 가격대의 쌀을 가공업체에 3년간 공급한다.

이어 떡, 빵은 물론 떡볶이 취급점 표시제 등을 실시해 쌀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햇반'으로 대표되는 무균밥, 냉동볶음밥, 찐쌀 등 쌀 자체 이용 제품의 확산 분위기를 이끌고, 쌀과 쌀가루 이용 즉석 조리기계 보급으로 가정에서의 소비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 주요 내용

올해 수확 쌀 정부 매입	• 수요량 이상 물량 전량 정부 매입 • 벼 매입자금 확대
쌀 재고 처분	• 2005~2008년산 쌀 50만 톤 긴급 처분 • 쌀가루 가격 인하
쌀 재배 면적 감축	• 3년 동안 매년 4만 헥타르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지원금 지급 • 정부가 농지은행 통해 2015년까지 3만 헥타르 논을 매입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대형 소비처 개발에도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수십만 장병이 모인 군에는 하반기 쌀두부를 시범 급식하고, 내년엔 전군에 월 3회 쌀국수 급식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기관 식당에서는 쌀국수 메뉴를 운영하고, 전·의경 급식과 간식에도 쌀 제품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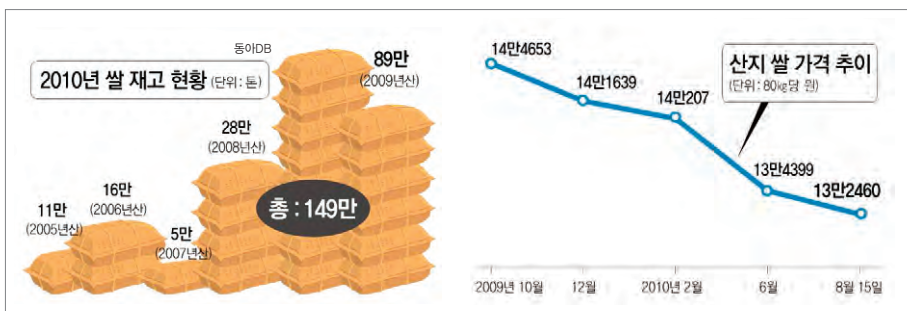
쌀 가공 산업도 활성화한다. 쌀 가공 시설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이 1백억원에서 1천6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자율도 3퍼센트에서 무이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각종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쌀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쌀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먼저 1년에 4만 헥타르씩 3년간(2011~2013년) 타 소득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 톤 이상 쌀 생산량을 낮출 계획이다. 변동직불금 지불 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3백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한 2015년까지 논 3만 헥타르를 직접 매입해 타 작목 전환에 활용한다.

내년에는 농업진흥지역 논 거래면적 약 2만 헥타르의 15퍼센트인 3천~4천 헥타르의 매입을 계획 중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해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 대책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 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민연태 식량정책과장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쌀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농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유재영 기자

연합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18개 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일 경기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채소와 과일 가격 등을 점검했다. 이어 무안청과 주인 강계화 씨 가게에서 수석들과 대변인 등을 위해 배추를 구매했다.

추석 자금난 해소 14조4천억원 푼다

가격 상승 조짐 21종 점검… 제수품 공급 4배 확대 등 물가 안정방안 발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도록 물가를 안정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물가가 급등하고 불편사항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9월 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핵심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내건 이후 처음으로 서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았다. 이날 새벽 6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채소와 과일 가격을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었다. 이후 추석 민생 문제 해결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회복이 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물가의 경우 2퍼센트대 중반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올해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수요까지 늘어나 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단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가 안정된 명절'을 키워드로 꼽았다.

따라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특별 점검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종과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돼지갈비(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6종 등 총 21개 품목을 특별 관리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직거래장터 · 특판 행사, 전국 2천5백 개소 개설

특히 제수용품 등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는 품목은 최대 4배까지 확보해 비축한다. 농협과 수협,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급 불안 품목으로 꼽히는 무, 배추, 오징어 등의 물량은 넉넉히 비축해 방출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천5백2개 소에서 연다. 시중가보다 10~40퍼센트 저렴하고 질 좋은 추석 성수품을 제공해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실질소득 제고를 도울 예정이다.

추석이 다가오기 전까지 각 부처들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친다.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해 추석 물가 집중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각 부처 장관 등은 부처 특성에 맞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석 물가 및 민생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물가관리 중점기간(9월 20일까지) 동안 전국 곳곳의 추석 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 3천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조2천억원 등 총 14조4천5백억원의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서민들은 햇살론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이동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에도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침도 내놓았다. 먼저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구조적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소비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추진한다. 무, 배추, 마늘, 과실류, 명태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 도입, 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가격 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및 공산품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할당 관세를 통해 가격 안정을 추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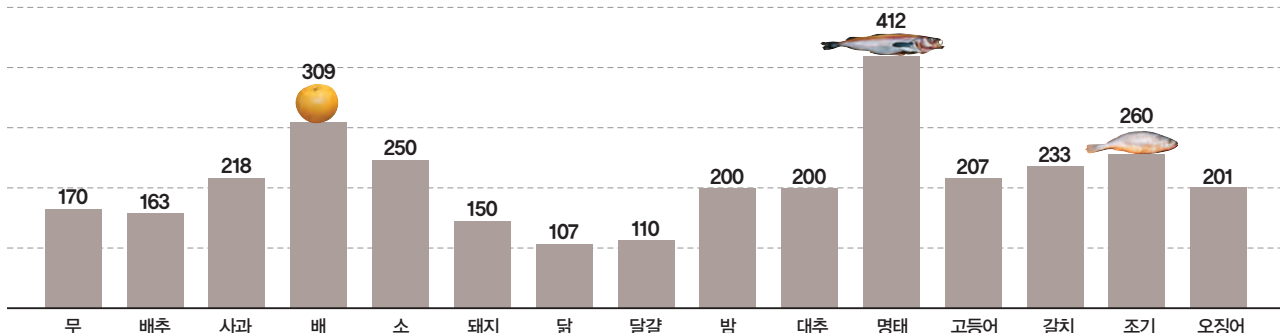
또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은 올 하반기까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특히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장면, 설렁탕 등 외식 품목 26종과 이·미용료 등 기타 서비스 23종의 서비스 요금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부당 요금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밀접 지방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이러한 단기적인 물가 안정대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1퍼센트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등 우리나라만의 구조적인 특징이 물가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동영 사무관은 "앞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물가구조의 선진화를 추구해 선진국과의 물가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대책 기간(8월 30일~9월 20일) **중 품목별 확대공급 계획**
(공급량 : 평시=100)

주택거래 정상화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DTI' 한시적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 5.2% 대출

정부는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국민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대출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양도세, 취득·등록세 등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 실수요자와 관련된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주는 실수요자의 요건은.

A DTI(Debt To Income)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DTI 완화 대상 주택 실수요자는 집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했다.

단,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주택이나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는 DTI 완화 대상이 아니다.

Q DTI 규제 완화에 따라 대출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A 그동안 금융권은 DTI를 차등 적용(강남 3구 40퍼센트, 서울 나머지 지역 50퍼센트, 인천·경기지역 60퍼센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이러한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TI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가 예전보다 늘지만, 그렇다고 주택구입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택가격의 절반을 초과해서 대출받지 못하게 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서울은 50퍼센트, 경기지역은 60퍼센트, 투기지역은 40퍼센트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의 실수요자가 서울 비투기지역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0년 만기 연 6퍼센트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 2억9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 대책 이후 주택가격의 절반인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분양주택에 입주할 경우 대출 지원은.

A 지난 4월 발표한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확대 적용해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4월 대책으로 신규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의 기존 주택을 살 때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을 만기 20년, 연 5.2퍼센트의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의 기존 주택을 살 때도 같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지원 대상자의 가구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출 대상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된다.

Q 서민층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지원 혜택은.

A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을 살 때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퍼센트로 대출해준다.

Q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은 얼마나 확대되나.

A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에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4천9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으로 올린다. 같은 조건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최대 6천3백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 전세는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다.

또 전세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에 사는 가구(연소득 3천만원 이하)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산금리를 0.5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소요 자금의 최대 8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Q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어떻게 조정되나.

A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가구, 지방 14만 가구)대로 추진한다. 다만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사전예약 물량을 당초 분양분의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퍼센트)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건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6217~6220 www.mltm.go.kr

일러스트 · 문지혜

8·2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대책	대상	내용	시행시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	● DTI 자율심사를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 적용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9월 2일부터
국민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 완화	● 신규 주택 6개월 이내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비강남 3구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기존 주택 구입자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리 5.2퍼센트, 20년 분할상환, 2억원 이내 대출 지원 ● 2011년 3월 말까지	9~10월 (시기 조정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자금 지원	● 비강남 3구의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9월 중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거주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층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전세금 대출한도를 4천9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으로 확대(3자녀 이상 가구는 6천3백만원까지) ● 연리 2퍼센트, 15년 분할상환	9월 중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 주택 구입자	●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감면하는 제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 중

글로벌 금융안전망 '청신호'

한국, IMF 대출 개선안 주도

경제위기 발생 전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예방 자금 지원 개선안이 한국 주도로 확정됐다. 이번 개선안이 합의됨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작업도 진전을 이루게 됐다.

IMF 대출제도 비교

비교	현행		개선	신설
대출 항목	대기성 차관(SBA)	탄력대출제도(FCL)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지원 대상	실제 BoP 수요가 발생한 국가	경제 펀드멘털이 양호한 국가	경제 펀드멘털이 양호한 국가	FCL 기준에는 미흡하나 건전정책을 수행 중인 국가
BoP 수요	모든 형태	모든 형태	주로 예방적 수요	주로 예방적 수요
인출 가능기간	승인 즉시 대출	6개월	1년	6개월
인출한도	없음	쿼터 대비 1,000%	한도 없음	쿼터 대비 1,000%
사후 정책 이행 요건	구조조정 등 광범위한 이행요건 부과	없음	없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해 부과

BoP=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 채권·채무 관계를 알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월 30일(현지 시간) 이사회를 열어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구축 노력의 일환인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한국이 주도한 이 대출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경제위기 발생 전 사전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FCL을 보완하는 새로운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이다.

대출한도 폐지·인출기한 연장 등 탄력대출제도 개선

대출제도 개선안은 위기예방을 위해 2009년 3월 도입됐으나 활용도가 저조했던 FCL의 대출한도(해당국 쿼터의 10배)를 폐지하고, 자금 인출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FCL의 대출한도 폐지는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며, 인출기한 연장은 자원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새로운 제도인 PCL은 FCL 기준에 일부 조건이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대출제도다. 이는 기존 FCL의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예방적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흥개도국들이 수혜 대상이다.

위기발생 시 '사후대처' 방안으로 사용돼 흔히 '구제금융'으로 불리는 IMF의 대기성 차관(SBA)이 동반하는 '스티그마(낙인) 효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예방대처' 방안인 FCL은 심사요건이 엄격해 현재까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개국만이 활용하고 있다.

IMF가 이번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는 물론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국가에 '좀 더 충분한 자금을 좀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위기전염 완화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IMF의 역할을 '사후 위기해결'에서 '사전 위기예방'으로 본격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동아DB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확정된 지난 6월의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지난 8월 31일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브리핑한 G20준비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이 서울 G20 정상회의(11월 11, 12일)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IMF의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 개선안의 1단계 합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탄력대출제도 기준 미달 국가 위한 예방대출제도 도입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 중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해 국제적 이슈가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G20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지난 2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전문가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 의제화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성명서에 반영돼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확정됐다. G

글 · 박경아 기자

최희남 G20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합의안 도출 과정에 한국 역할 컸다"

조영철 기자

"이번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출제도 개선안의 의미가 큽니다."

최희남 G20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한국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원래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한으로 추진됐으나 최근 유럽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특히 이번 개선안이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신흥 개도국들에 금융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PCL은 특히 신흥개도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을지 앞으로도 더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FCL 개선 등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추가적인 대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IMF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IMF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의 역할 강화,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협력과제 등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G20 기념주화 발행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주화가 발행된다. 한국은행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기 위해 오는 11월 3일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8월 31일 발표했다.

이 기념주화는 액면금액 3만원인 프루프(Proof · 엄격 관리로 생산되는 무결점 주화)급 은화(은 99.9퍼센트)로 크기(지름) 33밀리미터, 중량 19그램이며 테두리는 원형의 톱니모양으로 제조된다.

기념주화 앞면은 광화문과 G20 회원국 명칭을 넣고 뒷면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심벌인 청사초롱을 채색 기법으로 표현해 최대 5만 개가 발행된다. 국내 판매분(4만5천 개)은 9월 7~13일 농협과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는다.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 ☎ 02-759-4565, 4530

9월 독서의 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중 점 기 획

우리 강 제 모습 찾기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촌은 2025년 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유엔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1세기 물은 20세기에 석유가 차지했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세계미래회의 보고서 '아웃룩2008'

지구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물을 담는 '물그릇'을 키워 4대강을 안정적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큰 물그릇 역할을 하는 '보(洑)'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될 자연형 호안을 만들고 퇴적토를 준설해 강의 원래 모습, 건강한 옛 모습을 되찾자는 것, 이것이 4대강살리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대강 사업은 강을 강답게 살리는 길"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남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 맞다며 앞에 나설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절대보전'을 내세워 4대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적잖은 가운데 4대강살리기야말로 병든 강을 되살려 인간의 삶과 조화를 모색하는 상생 방안이라고 말하고 나선 환경전문가가 있다.

조영철 기자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은 강의 기능 회복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고 말한다.

"4대강에 떠 있던 부유물질도 정리되는 느낌이다. 찬성하거나 아니거나 강을 살리는 데는 한마음이었으니, 오해와 불신이 조금씩 가시는 모양새다. 재·보궐 선거에 따른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 전문가 그룹의 깊이 있는 토론이 일반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이 토론의 한복판에 선 사람이 차윤정 박사다…."

지난 8월 9일 〈국민일보〉의 '여의춘추 손수호' 칼럼은 '흑기사 차윤정의 4대강 분투기'라는 글에서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을 '토론의 한복판에 서 있는 흑기사'로 묘사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 큰 목소리로 호방하게 '음하하' 웃는 모습이 '흑기사' 답다. 차 부본부장은 서울대 산림자원학과에서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거치며 수목분류학, 수목생리학, 수목생태학 등 체계적인 학문적 지식을 갖췄다. 그는 유네스코 장백산 생태계조사단 연구원, 환경단체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운영위원 등을 지낸 생태환경 전문가다. 특히 박사과정 때 신갈나무를 의인화해 쓴 〈신갈나무 투쟁기〉는 '말랑한 생태학 책'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어 인기강사로도 명성을 얻었다.

"생태학은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 관계 유지하는 것"

그런 그가 지난 5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직을 맡자 일부에선 공무원으로 '변신'했다고 폄하했지만 그의 소신은 분명했다.

"평소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생태학' 하면 곧바로 '자연보존'으로 생각하지만 생태학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환경근본주의' 방식의 보전에는 반대한다. "숲을 가꿀까, 그냥 둘까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도 편하고 숲도 안정된다면 그냥 자연에 맡겨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개입하는 게 낫지요."

그런 점에서 산업화로 말미암아 병들고 높아진 강바닥 때문에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는 4대강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물 부족에 대비해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은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불가피한 개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금의 4대강은 온전한 자연이 아닙니다. 강의 노쇠 과정이 진행된 데다 인간은 강의 많은 것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지금의 강은 '이미 자연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는 말했다.

"강의 생태적 기능을 인간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난 뒤 이제 와서 '강아,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이 강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우리 사람이 서둘러 회복시키는 사업이 바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4대강살리기 사업'입니다."

강연, 토론회 등을 통해 4대강살리기를 홍보하고 환경·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며 반대모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는 8월 31일까지 41일간 4대강살리기 반대 농성이 벌어진 경기 여주군 금사면 이포보 농성 현장에도 다녀왔다.

충남 연기군 금남면의 금남교 인근 금강 모습. 강살리기 사업 이후 깨끗해진 하중도와 식생매트가 깔린 둔치가 강과 사람을 자연스레 이어주고 있다.

"제가 경기 광주시에 10년 살아서 잘 압니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 상류 쪽 충주댐에서 방류할 때 하류 쪽 팔당댐에서는 서울이 물바다가 될 우려 때문에 방류를 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주군, 양평군 등 두 댐 사이 지역은 매년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포보 농성을 끝내라는 여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했던 겁니다."

강살리기에 대해 여러 시각이 존재하지만 매년 홍수의 위험에 가슴 졸이는 여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4대강살리기는 일차적으로 강 근처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실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 범람 위험을 줄이고 수중보를 설치해 물을 확보하며 수로와 둔치를 다듬어 수중 생태공간을 회복시키는, 말 그대로 강살리기입니다."

"운하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

차 부본부장은 최근 방영된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운하라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운하를 하려면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돼야 하고, 갑문과 터미널 등 화물선 운항의 최소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낙동강 운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럴 경우 중간의 보(洑)를 다 뜯어내야 하고, 더구나 낙동강 수계 중 운하 운행이 가능한 6미터 이상 구간이 전체의 61퍼센트(4대강 중 26.5퍼센트)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비약"이라고 그는 반박했다.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부터 강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방송에서처럼 '전국의 수해 상습지와 4대강 구간이 일치하지 않아 4대강 정비 후에도 수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제조건부터 틀렸습니다. 전국 수해 상습지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방이 없거나 낮아 수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지정합니다. 국가하천인 4대강 본류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류는 방치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연간 1조원 이상을 4대강 외 지류하천 정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 내용 중 '경남지역 낙동강 본류의 홍수 피해는 전체의 1.3퍼센트'라는 것도 통계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본류의 홍수 피해액은 제방 피해액만 집계한 것인 데 반해 지류와 소하천 홍수 피해액은 제방뿐 아니라 주변지역 침수 피해와 시설물(도로, 교량 등) 유실 등 관련 피해액을 모두 집계한 것이어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내 힘찬 목소리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명하는 차 부본부장의 모습에서 '여의춘추 손수호' 칼럼의 마지막 대목이 떠올랐다.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4대강'은 차 박사와 같은 지식인의 역할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차 부본부장과 같은 흑기사들이 더 많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연합포토

지구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을 겪으며 과다하게 논에 물을 끌어 쓰는 인도는 특히 북부지역에서 지하수 양이 급격히 줄고 있어 물 부족이 심각하다. 물을 구하기 위해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도 여인들(2009).

"물 부족,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빈곤지수(W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0위이며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담수량은 1백53개 국가 중 1백29위입니다.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5세 이하 어린이 수는 한 해 1백80만명으로 이는 2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셈이다. 오염된 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 전 세계 환자 중 절반은 오염된 물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유엔환경계획 · 2010)

파란별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중 97퍼센트는 소금물이며 나머지 2퍼센트는 눈과 얼음에 갇혀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의 단 1퍼센트의 물로 마시고, 씻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물 사용량은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2008년 앨빈 토플러 등 저명한 학자로 구성된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Society)는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을 겪게 되고 10년 안에 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빈곤지수(WPI)는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위로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담수량은 153개 국가 중 129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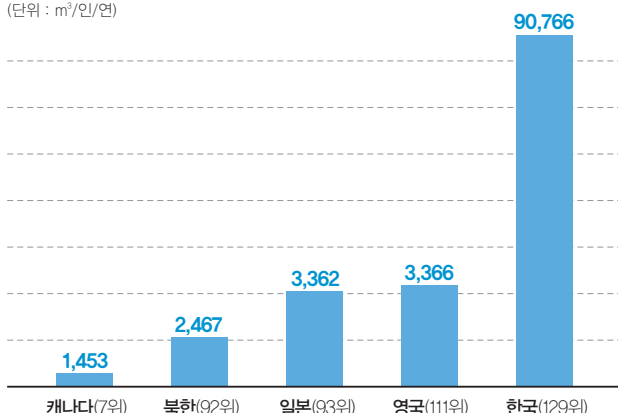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2008~2009년에는 48개의 시군 7만 가구가 제한급수로 고생했으며, 강원 태백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손수레로 물통을 직접 운반해야 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8억 세제곱미터, 2016년에는 1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 부족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물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의 70퍼센트가 6~9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그중 42퍼센트는 증발 등으로 손실되고, 31퍼센트는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특히 국토의 65퍼센트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빗물이 바다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천 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은 홍수를 유발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 하천수질 오염을 가중합니다. 버려지는 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해 물을 담아둘 수 있는 큰 '물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G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담수량

(단위 : m³/인/연)

가뭄으로 강원 태백시 주민들이 급수차에서 물을 받고 있다(2009).

영산강 승촌보 조감도

'보'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일정한 양의 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건강한 물'을 만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보에 저류된 수량의 다목적 활용

보에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다용도로 활용합니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최첨단 보 관리

상류의 다목적댐과 가동보, 하굿둑은 홍수 조절과 물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자연의 힘으로 퇴적물을 청소하는 시스템

4대강의 보는 최첨단 '가동보'로 만듭니다. 가동보는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릴 때 개방해
퇴적물을 자연의 힘으로 청소하는 등 친환경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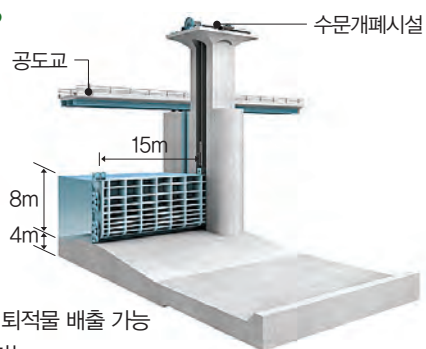
친환경 디자인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어도(魚道)와 생태습지 등을 마련합니다. G

낙동강 칠곡보 조감도

퇴적물을 자연의 힘으로 청소하는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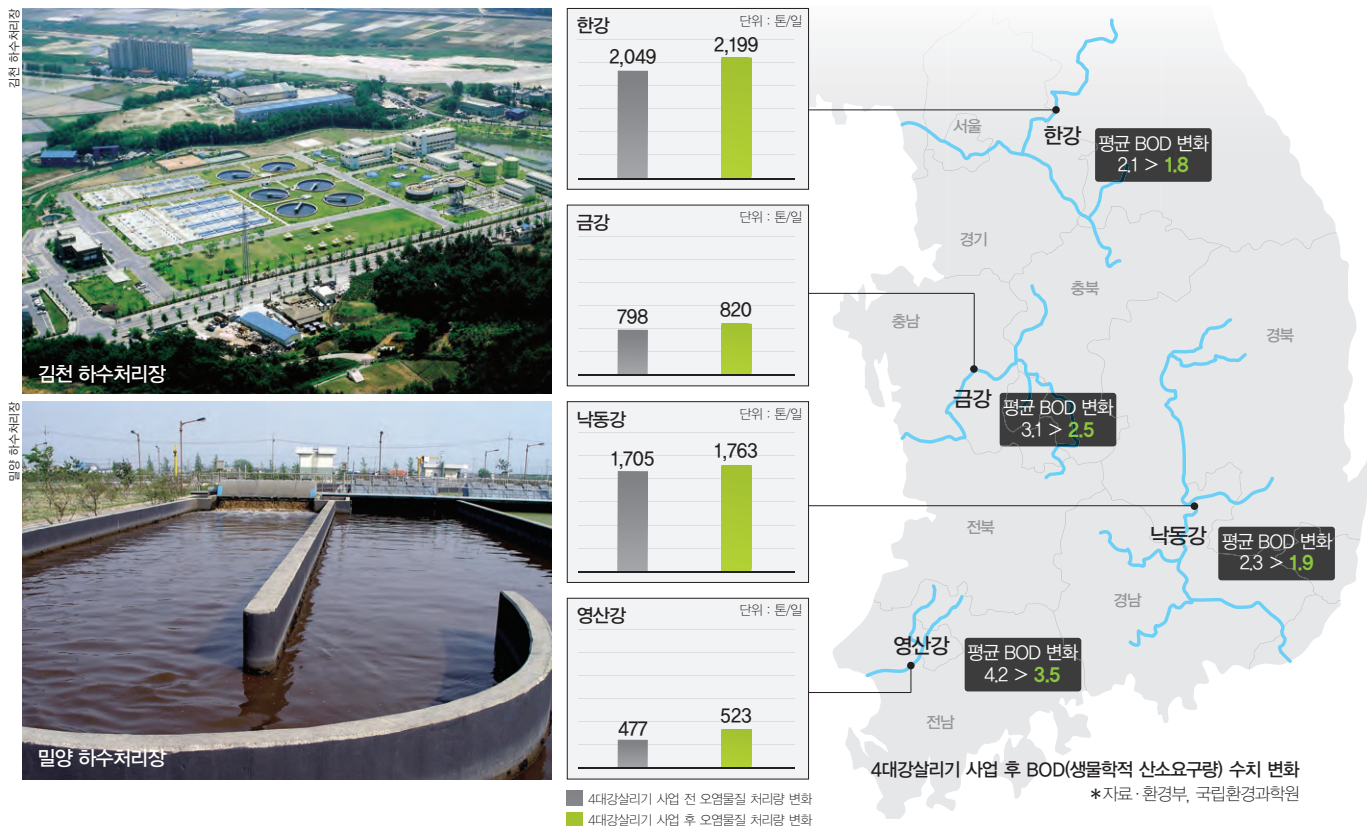
[보(洑)] 각종 용수를 얻거나 생태수변공간 활용 등을 위해 물을 가두고,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 저수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최첨단 친환경 '보'란?

1. 항시 수문개폐 기능으로 퇴적물 배출 가능
2. 수문이 있어 수위 조절 가능
3. 홍수, 가뭄 등에 능동적 대처 가능
4. 어도 설치, 친환경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조성

4대강 본류는 물론 지천 정비로 해양오염까지 관리합니다

'4대강살리기'는 우리 하천생태계의 문제점인 수량부족 해결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근본적인 수질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하천의 건강은 물론 지구촌 해양환경에도 크게 기여하는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유역 도시들의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면 수질이 좋아집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 변화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살리기 사업 후 환경기초시설 처리량 비교

구분		마을하수도	산업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한강	사업 전	34,715	87,030	3,080	9,630,400
	사업 후	79,927	128,840	3,360	10,544,030
낙동강	사업 전	20,195	320,880	1,130	3,319,530
	사업 후	45,524	461,627	4,160	3,676,490
금강	사업 전	11,925	359,530	1,220	1,443,530
	사업 후	27,415	386,530	1,220	1,506,620
영산강	사업 전	6,167	–	330	797,600
	사업 후	12,072	1,200	480	838,900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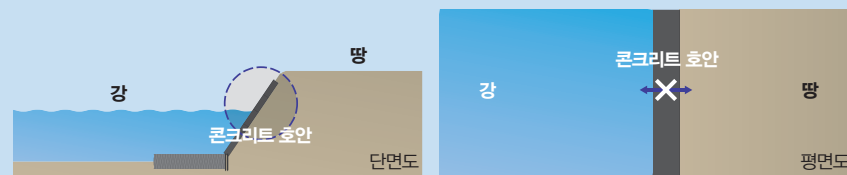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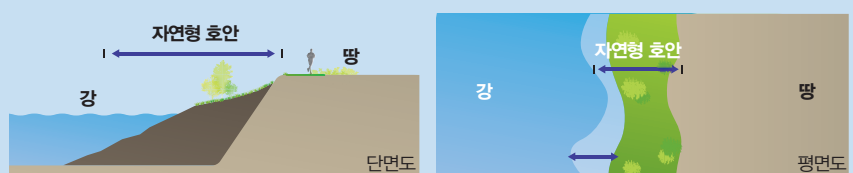
조영철 기자

◀콘크리트를 허물고 자연형 호안을 새로 조성한 난지한강공원.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2007년부터 콘크리트 호안을 제거하고 자연형 호안을 조성해 지난해 총 72킬로미터 중 21킬로미터 구간 조성을 완료했다. 현재 나머지 51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1980년대 한강 난지지구에 설치했던 콘크리트 호안.

자연형 호안으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4대강살리기'는 강과 강기슭을 콘크리트로 막아 철새들이 쉼터를 잃고, 물고기들의 산란장소를 단절시켰던 '한강종합개발사업'과 다릅니다. 30년 전 한강종합개발사업은 가뭄과 홍수, 수질오염 등으로 병들었던 철새, 물고기, 풀벌레들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미처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진 못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로 작은 생명들까지 모두 품에 안으려 합니다. 생명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갈대밭을 조성해 새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돌려주려 합니다. 자연형 호안(강의 기슭이나 제방을 보호하는 시설)으로 습지를 조성해 우리의 꽃과 풀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건강한 강과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물과 땅이,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생명의 보금자리로 4대강이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G

영산강 퇴적토

퇴적토 준설은 사람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바닥 준설로 강을 치료합니다.

우리 국토의 핏줄인 하천은 오랜 무관심으로 퇴적토가 지나치게 쌓여 바닥이 높아져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을 때면 허옇게 바닥을 드러내며 강의 흐름을 막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오랫동안 강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토를 시원하게 걷어내면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던 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1986년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 2개를 설치한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우려와 달리, 개발 이후 사라졌던 황복이 돌아오는 등 물고기와 새의 종류가 늘어나며 생태계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강물이 넉넉해져 생명이 살아갈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준설한 흙은 엄격한 토양시험을 거쳐 농경지 리모델링에 활용합니다. 또한 준설할 때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흡입식 준설과 구간별 순환공사로 환경이 덜 아프고 덜 다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

▲물자를 싣고 온 배들이 정박해 있는 1930년대 나주 영산포.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요지였던 한강의 여주 이포나루(1937).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나주, 여주 등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 준설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후 한강 여주보.

과거 5년간 홍수 복구비(21조원)만 해도 4대강살리기 사업비(22조원)는 거의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홍수로 연간 피해액 2조7천억원, 복구비 4조2천억원, 홍수 예방 투자 1조1천억원 등 해마다 8조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홍수 피해로 40조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홍수 피해액은 1990년대 4천6백억원에 비해 5배 급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급증하는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 홍수 예방 사업비의 비효율적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홍수 피해의 근본적 해법인 4대강살리기는 홍수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종합대책입니다. G

최근 5년간(2002~2006년) 홍수 피해·복구·예방액 및 4대강살리기 사업비

홍수 피해액	홍수 복구비	홍수 예방 사업비	4대강살리기 사업비
13.5조원 (2.7조원/년)	21조원 (4.2조원/년)	5.5조원 (1.1조원/년)	22.2조원

‘공정한 사회’의 실천

‘문화복지 대한민국’

시골 읍내 허름한 영화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꼬마가 세계적 영화감독이 되어 귀향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보듯이 자라나는 아이에게 문화적 경험은 미래를 꿈꾸는 씨앗이 됩니다. 어른들에겐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생활 속 느낌표가 문화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 않듯이 소득만 높고 품격과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문화복지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문화, 어른에겐 삶의 질·아이에겐 꿈 키워주는 것"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여전히 소득과 지역에 따라 풍요와 빈곤의 차가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으로는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없다. 삶에 만족하는 어른들과 꿈꾸는 아이들이 있는 문화복지국가가 진정 잘사는 나라다. 가난해도, 도시가 아니어도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베네수엘라 거리의 아이들이 음악 하나로 삶을 바꿔가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거리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테마〉가 지난 8월 국내에 개봉해 잔잔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미 '한국의 엘 시스테마'가 존재한다. 지난 2월 11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 놀라운 화음으로 클래식을 연주해 '기적의 연주'라는 찬사를 받은 부산 소재 '소년의 집' 관현악단이 바로 한국의 엘 시스테마다.

'세상을 바꾸는 까까머리 소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 관현악단은 그럴듯한 악기도, 비싼 레슨도 없었다. 그저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실력을 갈고닦아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며 세계적 예술도시인 뉴욕 무대에서 세 번의 커튼콜을 받았다.

30년간 명맥을 이어온 이 관현악단의 카네기홀 연주 성공 뒤에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씨가 있었다. 우연히 이들의 연주를 듣게 된 그는 지휘 공부를 하는 셋째 아들 정민 씨에게 소년들의 지도를 맡겼고, 자신은 카네기홀 공연과 악기며 연주복 대여를 주선했다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다.

이 세계적 지휘자가 불우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희망의 전령이 돼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라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명예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만나는 등 문화를 통해 많은 아이들의 희망을 키워줬다.

지난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문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그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동아DB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문화 서울'을 만들고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세계적 지휘자인 정 씨를 초빙했고, 그는 "조국의 음악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기꺼이 그 요청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 줄이는 데 초점"

이 대통령은 동유럽의 공산체제가 와해된 와중에도 어린 학생들이 공연을 보며 문화적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정부 지원이 계속된 데 대해 큰 감동을 받았던 일도 전하며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문화복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계

마리아수녀회

이 아이들의 웃음과 꿈을 지켜주는 것이 문화복지다. 서울 대한생명 63아트홀에서 〈판타스틱〉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왼쪽)과 정명훈 씨의 아들 정민 씨 지휘로 연습 중인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

비 지출 항목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문화생활비지만, 문화생활비야말로 어른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레가툼 연구소가 개발한 삶에 대한 평가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 생활과 여가시간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50개국 중 물질적 부의 순위에서는 12위였지만 삶의 만족도 순위에서는 36위에 그쳤다.

1988년부터 2, 3년 주기로 국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해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누적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상황에 따라 문화생활비가 비례하는 일관된 추세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 실태조사에서 가계소득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추이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후 이듬해 문화여가비는 전년의 5.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감소했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는 4.6퍼센트로 내려갔다.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예술교육 확대 제안

빈부격차에 따른 문화생활의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2008년)에서 우리 국민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은 2년 전인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5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월소득 '1백만원 미만'과 '1백만~1백99만원'인 가구의 관람률은 오히려 각각 4.6퍼센트 포인트, 6.4퍼센트 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 70.6퍼센트가 연평균 5.12회의 예술행사에 참여하지만 군 지역은 48.9퍼센트가 2.63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 문화소비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소비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문화복지가 절실한 분야를 초등학교 저학년 예술교육 분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예술을 통한 감수성과 지능, 창의성 개발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고 있지만 공교육 과정의 예술교육이 충분치 않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경우 가장 먼저 교육을 포기하는 분야가 예술교육 분야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교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술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던디대 연구팀은 어린 시절에 본 TV 색깔이 꿈의 색깔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25세 이하 사람들 중 5퍼센트만이 흑백 꿈을 꾸었고, 55세 이상은 25퍼센트가 흑백 꿈을 꾸었다고 한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의 깊은 인상이 평생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풍부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색색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문화복지의 지향점일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 등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오페라 〈아이다〉의 한 장면.

"빠듯한 삶에 '문화의 단비' 내렸어요"

문화바우처, 저소득층에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미국의 사회비평가 얼 쇼리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는 깊이 있게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영화나 공연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1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 보니 8, 9천원씩 하는 영화나 몇 만원씩 하는 공연은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화바우처 덕분에 지난해 한 달에 한 번씩 극장에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 신년음악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도 청각으로나마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더 커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_서울 역촌동 장세희 회원

#2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도 가슴 한편에는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픈 다리를 끌면서도 저와 마당놀이 〈토정비결〉을 보러 가는 게 행복하셨나 봅니다. 볼 만하냐고 여쭤봤더니 재미있다며 내년에도 볼 수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또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 같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_서울 묵동 김미영 회원

문화바우처 회원들이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이다. 회원들은 문화바우처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고 가족관계도 돈독해졌다고 말한다.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는 공기처럼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마음 편히 영화 한 편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08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0.55회로 국민 평균 4.88회에 크게 못 미친다.

문화바우처는 이처럼 문화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연, 전시, 영화 등의 관람 비용을 1년에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해

숫자로 보는 문화바우처

2010년 지원 예산

연도	예산
2005	5억원
2006	26억원
2007	20억원
2008	27억원
2009	40억원
2010	67억원

진 프로그램을 보는 초대 관람과 달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문화바우처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주어지는 5천 포인트 한도 내에서 관람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예매하면 된다. 5천 포인트는 현금으로 5만원에 해당하나 공연단체의 50퍼센트 할인으로 최대 10만원의 가치가 있다.

또 정회원 중 장애인, 노인, 아동은 동반인 1명이 함께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30명 이상의 단체관람이나 이동거리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차량, 식사 등 부대 서비스도 제공된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67억원 지원 및 도서 구입 추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복권기금 40억원을 지원해 연 인원 29만6천2백98명이 2천5백96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했다.

정부는 올해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67억원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에 도서 구입을 추가했다. 이로써 중증 장애인, 산간벽지 거주자 등 외부 이동이 어려워 문화 관람이 힘든 사람들도 책으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목록에 오디오북도 포함했다.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김응진 사무총장은 "문화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문화바우처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작지만 강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문화바우처 ☎ 1588-5683 www.문화바우처.kr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 즐기세요"

사랑티켓으로 문화소외계층에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고등학교 시절 '사랑티켓'으로 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과제 때문에 난생처음 본 공연이었습니다. 표값이 부담스러웠는데, 친구가 사랑티켓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볼 수 있다고 알려줘 7천원이나 할인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의 즐거운 기억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지금도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한혜련(26·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씨는 "사랑티켓은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라며 "아직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다는 남자친구에게도 공연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체험한 문화공연은 평생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든다. 사랑티켓은 비용 부담 때문에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료를 지원해 문화복지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랑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3~24세 아동·청소년, 교사,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거주자, 광역시와 경기도의 읍면 단위 이하 거주자다.

사랑티켓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시 연령에 따른 회원은 실명 확인 후 자동 인증되며, 지역 가입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증빙자료를 팩스나 e메일로 제출해 지역 주관처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원이 되면 개인은 연 10회까지 한 장당 7천원이 할인(전시 사랑티켓은 1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단체는 연 3회까지 5천원이 할인(전시 사랑티켓은 1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국악, 오페라, 뮤지컬, 발레,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공연을 선택해 예매하고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티켓을 수령하면 된다.

지난해 사랑티켓은 20억원의 복권기금 지원으로 56만5천4백32명이 2천5백23개 문화작품을 관람했다.

사랑티켓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사랑티켓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연의 경우 별도 심의계획을 수립하는 등 참가작품의 심의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각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공립 공연장의 사랑티켓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랑티켓 ☎ 02-762-4242 www.sati.or.kr

1인당 지원 포인트

- 현금으로 5만원에 해당하나 공연단체의 50% 할인 참가로 최대 10만원의 가치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 도서 구입
- 장애인, 어르신, 아동은 동반인 관람 가능
- 버스 지원(30인 이상 단체관람, 1시간 이상 이동거리)

296,298명

2009년 문화바우처 이용자

1위 영화, 2위 뮤지컬

2009년 문화바우처 이용자 비중

"방방곡곡 문화를 배달해드립니다"

소외계층·지역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확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등 10개 국립예술단체는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으로 전국 곳곳을 문화의 향기로 채우고 있다.

#1 지난 6월 28일 충남 태안군 여성회관에서 훈훈한 만남이 이뤄졌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튿날인 6월 29일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태안군 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조촐한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날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흥겨운 우리 민요를 배우고 전통악기를 두들기는 등 우리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2 경남 창원시의 315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기 위해 7월 23일 이 지역을 방문한 서울예술단의 주연 배우들은 여장을 풀기도 전에 특수학교인 혜림학교를 찾았다. 뇌성마비와 청각장애가 있는 25명의 혜림학교 학생들은 이날 배우들 앞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연기에 도전했다. 이곳을 찾은 배우들은 "더듬거리고 수줍어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에 당당히 나선 학생들에게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로미오와 줄리엣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이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국립국악원,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등 10개 국립예술단체가 문화소외지역(서울 및 광역시, 재정자립도가 40퍼센트 이상인 도시는 제외)의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고품격의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을 구석구석 누비며 50개 지역에서 1백20회 공연을 펼친다. 2008년부터 시작된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지난 2년간 83개 문예회관에서 1백15회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지난 6월 28일 충남 태안군 여성회관에서 이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 전통악기 연주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국립예술단이 전국의 문화소외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품격 공연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전북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을 선보인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선보이며 6만5천여 명의 관객을 만났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주축인 국립예술단은 공연을 마친 뒤 관객을 위한 이벤트를 따로 연다. 배우와의 만남, 무대 체험, 사인회 같은 친밀도 높은 부대 행사를 통해 공연에 대한 관심과 감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예술단은 문예회관에서의 공연뿐 아니라 구석구석의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의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등을 찾아가 그곳에서 지내는 이들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체험도 함께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것이다.

국립예술단체, 문화소외지역 찾아 공연 선보여

특히 올해는 국립예술단원들이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복지시설 대상자와 함께 하루 동안 각 국립예술단의 전문 장르를 오감으로 느껴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해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전북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을 선보인 국립오페라단이 좋은 예다. 국립오페라단은 공연 전날인 4월 29일 전교생이 28명인 김제 금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체험 프로그램 '교실 밖 오페라여행–오페라수수께끼'를 아이들과 함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수한 사무관은 "이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통해 각 지역 문예회관에 어울리는 맞춤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더 많은 소외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소외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국립예술단의 공연을 보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의 또 다른 축인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이하 문화순회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화순회사업은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전국의 농산어촌과 도서 산간벽지 주민,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거주자,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펼쳐온 민간 공연단체의 활약이 눈부시다. '찾아가는 가족콘서트 추진위원회'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폐교에서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가족콘서트〉를 2004년부터 개최해왔다. '비눗방울 아저씨'로 유명한 일본의

농산어촌 문화순회사업 일정

단체명	공연일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11월 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복지센터
(사)문화마을들소리	11월 2일	경북 영주 봉현 만남의광장
(사)우도농악보존회	11월 2일	전남 광양시 진월면 진월초등학교 강당
광대패모두골	11월 4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농협 회의실
고르예술단	11월 5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마을
극단세이레극장	11월 6일	제주시 조천도서관
줄타기보존회	11월 6일	강원 춘천시 신동면 조양초등학교
서울신포니에타	11월 10일	경기 이천시 율면 고당리 율면초등학교
인터팝스오케스트라	11월 1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농협 회의실
극단 갯돌	11월 11일	전남 목포시 석현동 목포농협 회의실
고르예술단	11월 11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 마트 광장
극단세이레극장	11월 1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사무소앞
서울신포니에타	11월 12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삼광중학교
극단세이레극장	11월 14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도서관
춤패뉘무용단	11월 15일	충남 천안시(장소 미정)
극단 갯돌	11월 18일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덕진농협 회의실
서울목관5중주단	11월 18일	전남 신안군 북신안농협 회의실
고르예술단	11월 19일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인지지점농협 회의실
퓨전국악아이리아	11월 19일	경남 거제시 신현문화센터
퓨전국악아이리아	11월 24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농협 회의실
새울전통타악진흥회	11월 24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조치원농협 회의실
한국전통단아울	11월 24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장계농협 회의실
극단 님비곰비	11월 25일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동횡성농협
고르예술단	11월 26일	경북 청송군 현서면 현서농협 회의실

마임이스트 오쿠다 마사시를 비롯해 동요를 노래하는 할아버지 밴드 '철부지', 국내 유수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클래식 중창단, 예동어린이 중창단, 마술 같은 인형극을 선보이는 '그레고', 가수 유열 등이 출연한다. 이 공연은 콘서트를 통해 농산어촌 주민들 스스로 학교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단체인 극단 김동수컴퍼니는 서울 대학로에서 성공한 연극 <우동 한 그릇>을 재활원, 보육원, 노인복지관, 쉼터에서 선보이고 있다. 일본작가 구리 료헤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은 우동 한 그릇에 얽힌 세 모자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인정과 배려, 가슴 뭉클한 가족애를 느끼게 한다.

극단 김동수컴퍼니

극단 김동수컴퍼니의 연극 <우동 한 그릇>.

2010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정(10~12월)

지역	문예회관	공연단체	공연작품	공연일	장소
강원	평창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오늘이	10월 14일	봉평 달빛극장
강원	강릉문화예술관	국립국악원	신나는 국악여행	10월 9일	중앙초 방과후 학교
강원	원주치악예술관	국립발레단	발레이야기	10월 9일	원주 손곡예술마을
충북	음성문화예술회관	서울예술단	로미오와 줄리엣	10월 9일	다문화지원센터
전북	완주향토예술회관	국립관현악	잔치	10월 15일	봉동초 양화분교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	서울예술단	다롱디리	10월 16일	연기외국인노동자센터
전남	나주문화예술회관	남도국악원	음악극 백구야	10월 16~17일	
전남	순천문화예술회관	국립합창단	만덕할망	10월 22일	
경북	의성문화회관	국립창극단	청	10월 28일	의성 자혜원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민속국악원	마당을 나온 암탉	11월 03일	
충남	서산시문화회관	국립발레단	백조 하이라이트	11월 4일	행복한꿈아동센터
경남	김해문화의전당	국립발레단	발레이야기	11월 13~14일	구산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거창교육문화센터	국립무용단	코리아 환타지	11월 17일	
경북	삼국유사문화회관	서울예술단	새벽의 천사	11월 23일	군위노인복지센터
경기	양평문예회관	코리안심포니	가족음악회	11월 26일	안식관
전북	고창문화의전당	코리안심포니	가족음악회	11월 27일	영선중학교
전북	익산솜리문예회관	국립관현악	잔치	12월 1일	이리보육원
강원	인제문화예술회관	국립관현악	잔치	12월 03일	기린초 3개 분교
경기	포천반월아트홀	국립무용단	코리아 환타지	12월 03일	
전남	화순문예회관	정동극장	미소	12월 9일	

김동수컴퍼니의 김동수 대표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공연하다 보니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생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문화소외계층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공연을 본 관객도, 연기를 한 배우도 흐뭇함을 감추지 않는다. 엄마 역을 맡은 임은혜 씨는 "외진 곳에 가서 공연하면 배우가 오히려 관객에게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는다"며 "해마다 이런 순회공연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많은 공연단체가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을 만나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 올해 문화순회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극단 미추, 서울스트링앙상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등 모두 1백58개다. 이들 단체에는 복권기금 54억5천만원으로 한 곳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공연 예산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나머지 10퍼센트는 공연단체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1백58개 문화순회사업 단체에 공연예산 지원

문화순회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문화 인프라 시설이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사업은 특히 도심과 농산어촌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불균형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산어촌 대상 순회공연 횟수를 전년 대비 50퍼센트 이상 늘린 것도 그 때문이다. 4~8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 지원을 더욱 활성화해 오지와 산간벽지까지 문화순회사업이 확산되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경오 사무국장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으로 공연을 하는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소외지역, 소외계층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며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은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여력이 생겼고, 문화소외계층은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질 좋은 공연을 편안히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02-586-0363 www.kocaca.or.kr

"강원래의 꿈이 뭔지 아세요?"

교정시설 돌며 '쿵따리유랑단' 공연… "장애 편견 날려버려야죠"

2008년부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으로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공연 단체가 있다. 그룹 '클론'의 강원래(41) 씨가 이끄는 클론엔터테인먼트다.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순회사업에 매진해온 클론엔터테인먼트는 <쿵따리유랑단의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00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강 씨가 끼 많은 장애인들을 모아 '쿵따리유랑단'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공연이다.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했어요. 공연을 보는 교정시설 청소년들이 진솔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꿈을 갖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만 실제로는 단원을 극중에서처럼 오디션으로 선발하지는 않았어요. 과거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재능 있는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모았죠."

한 손을 쓸 수 없는 마술사, 키 1백10센티미터의 트롯 가수,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는 댄서, 안면장애를 겪는 배우 지망생…. 등장인물들이 가진 장애는 저마다 다르지만 꿈을 이루려는 투지와 열정만큼은 한결같다. 마침내 이들이 오디션에 합격해 클론의 히트곡 '쿵따리 샤바라'를 열창하는 장면에서는 배우도 관객도 눈시울을 적신다.

"장애인도 어우러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 되고 싶다"

지난해 이 공연을 본 춘천소년원 헤어디자인반 차모 씨는 "장애인을 불쌍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상인인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공연을 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 용기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던 배우들도 공연을 다니며 한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쿵따리유랑단장 역을 맡고 있는 강 씨가 공연 도중 읊조리는 독백이 의미심장하다.

'다시 못 걷는다는 말에 힘들었다. 춤도 못 추고, 똥오줌도 못 가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힘들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장애인을 만나서 느낀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다. 더 잘해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려던 나를 반성한다.'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온 강 씨는 전보다 외연을 넓혔다. 폭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 지도 벌써 7년째. 공연을 펼치며 방송진행자와 대학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클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도 달았다. 그 덕에 5명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총 50회 공연을 하면서 1년에 10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연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왔지만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강 씨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많은 꿈을 품고 있다.

서울 서초동 클론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만난 강원래 씨. 그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쿵따리유랑단' 공연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쿵따리유랑단 공연을 청와대를 비롯해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파리 등지에서 열고 싶어요. 우리 공연 내용을 영화와 뮤지컬로도 선보이고 싶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G

글·김지영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삶의 터전에 예술꽃 씨앗을 뿌리자"

예술꽃 씨앗학교·문화예술 선도학교 등 교육사업 활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배움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로 하는 공부만으론 부족하다. 가슴으로 배우는 문화예술교육이 기반이 돼야만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교육의 향연 속에 빠져보자.

울산 반천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돼 전교생이 음악 특별수업을 받는다. 사진은 색소폰을 불고 있는 반천초교 4학년 조진혁 군(왼쪽)과 이종화 군.

한여름만큼은 아니지만 습한 열기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마지막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초등학교에 오후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학 첫날이라 오후 수업이 조금 버거울 텐데도 아이들은 한껏 들떠 보였다. 한 손에 네모난 박스를 들고 곧 각 반 표찰 아래 써 있는 명칭대로 흩어졌다. 이윽고 교실마다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바이올린 등 관현악기의 서로 다른 음색들이 어우러진 합주가 시작된 것이다.

색소폰이라는 명칭이 붙은 교실 문을 살짝 열었다. 나란히 앉아 진지한 눈으로 악보를 보며 연주하는 두 명의 꼬마 색소포니스트가 눈에 띄었다. 색소폰 선생님이 다른 한 명의 아이를 따로 가르치는 동안 둘은 알아서 연습 중이었다.

"여긴 이렇게 해야 돼." "응, 알아. 다시 해보자." 4학년인 조진혁 군과 이종화 군이 상의 끝에 실수 없이 연주한 곡은 애니메이션 영화 <미녀와 야수> 주제곡. 평소 장난 잘 치고 까불거리는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집중력을 보이는지 레슨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연주했다. 피스를 힘주어 불다 보니 조그마한 입술은 살짝 부풀고 이마에 땀도 송송 배어났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종화 군은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재미있다"며 천진한 미소를 짓는다.

"제 목소리보다 씩씩하고 멋진 음색을 내는 색소폰을 불 때마다 신기해요. TV 드라마 주인공들이 곧잘 연주하는 악기를 직접 다뤄보니까 제가 멋있어진 기분도 들고요."

이웃 교실에선 가냘프지만 또렷한 음색을 자랑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포즈나 소리가 빼어나 보이는 학생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부터 방과후 학교로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3학년 방경목 군이다. 경목 군은 함께 배우는 또래 친구들보다 한참 앞서 보였다.

울산 반천초교 매주 2번 서양음악 배워

"학교에서 처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공부도 재밌지만 바이올린도 정말 재밌어요. 무엇보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바이올린이 가장 친한 친구가 돼줘서 기뻐요. 앞으로도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워 멋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날 반천초등학교의 오후 수업은 2008년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되면서 시작한 서양음악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일주일에 2차례,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 수업은 1학년에게 서양음악 이론을, 2~4학년과 5, 6학년에게 수업시간을 교대로 바꿔가며 악기 실기를 가르친다.

반천초등학교는 울산 시내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에 자리한다. 주변은 산과 농경지 등으로 개발이 덜 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체험하기 어렵다. 학교 건너편의 아파트 단지 덕분에 학생 수는 3백여 명을 간신히 유지하지만 아이들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다.

2008년 교장공모제로 이곳에 부임한 남진석 교장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꽃 씨앗학교에 지원해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37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아이들에겐 행복한 삶을 알려주는 문화예술교육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처음 교장이 된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위해 전국 92개 지원기관 선정

악기 레슨이 모두 끝난 뒤 음악실에선 헨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졌다. 그동안의 연습성과를 토대로 지난 학기에 창단한 42명의 관악기 오케스트라의 연습이 시작된 것이다.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안정희 교사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이 특히 보기 좋다"며 "8월 말 4박5일간의 음악캠프 여행을 통해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앞으로 더 큰 무대에 서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씨앗이 전국 곳곳에서 그 싹을 틔우고 있다. 사실 문화예술이 주목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미래이고 사람이 곧 힘인 우리나라에서 소프트파워를 키워내기 위한 가장 큰 밑바탕은 문화예술교육이다. 정부는 이를 깨닫고 계층과 세대, 학교와 사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먼저 문화예술 습득 정도가 빠르고 효과가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실시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술꽃 씨앗학교다.

2008년 실시된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이 취약한 농어촌, 도농복합지역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1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4년간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학교별 특기 프로그램과 기자재를 보급해 아이들 모두 무료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업 시행 3년차인 지금 각 학교는 놀랄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교생이 60명 남짓한 전남 여수 북초등학교는 국악, 서양음악 등 다양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돼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고, 2012년 열릴 여수세계박람회 문화행사 참여를 목표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남원초등학교는 이제 '영화학교'로 더 유명

문화예술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다. 전국 각지에 있는 10개의 예술꽃 씨앗학교는 학교 특성에 따라 서양음악, 국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친다. 사진은 울산 반천초교 관악기 오케스트라의 연습 모습.

예술꽃 씨앗학교나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은 아이들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 소질 계발과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

하다. 영화교육을 특기교육으로 영화 감상에서부터 연기까지 가르쳐 전교생 모두 '영화인'으로 불린다. 앞으로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화 중심의 테마파크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개성 있는 학교 교육 시스템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도 있다. 2007년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는 현재 2백 개교에서 운영 중인데, 학교별 특성에 따라 부모와 지역민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경남 창녕군 유어면 유어초등학교의 경우 선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40명 남짓한 전교생이 만화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전국 1백8개 시설에 지역주민 위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분야별 최고 예술가로 구성된 명예교사제도가 채우고 있다. 지휘자 정명훈, 성악가 조수미, 국악인 김덕수, 배우 남경주 등 다양한 예술가 명예교사가 지난해 전국 2백90개교에서 1만1천78명의 학생들에게 공연 해설이나 현장 체험을 이끌었다. 특히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는 9천여 명이나 참여할 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마련돼 전국 92개 지원기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나누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보건복지부의 시설 인프라를 결합한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1천2백여 명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학 전 연령의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유아들의 표현력과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이나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치원 1백14곳에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예술 기반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통해 좀 더 전문화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계층 간,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봉급 나눔을 통해 전국 1백2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2천3백명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현장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등 대기업의 지원으로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청소년 4백20여 명에게 악기, 합창, 뮤지컬 교육 등을 제공하고 오케스트라와 공연단을 결성해 찾아가는 공연도 벌이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교육도 제공된다. 문화의 집, 문화원, 박물관 등 지역주민이 상시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 실습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 1백8개 시설에서 2천6백80명의 주민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거나 동아리를 결성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양질의 강사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매년 교육 수요와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전국 5천4백36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4천1백56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3퍼센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기존의 국악, 연극, 영화 등 5개 문화예술교육 과목에서 사진, 공예, 디자인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선생님으로서 그 능력을 활용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예술교육 일자리 사업도 운영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을 돕는 예술강사 5백50명도 문화 나눔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최지윤 담당자는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예술강사들의 실력과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예술강사 연수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그곳에 가면 작은 희망들이 자라고 있어요"

소외지역서 영화 가르치는 예술강사 최영익 씨

매주 수요일 새벽 5시, 최영익(41) 씨는 경북 상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싣는다. 벌써 5년째지만 그에게 서울에서 상주로 가는 짧은 여행은 설레기만 하다. 그곳에 가면 그를 기다리는 작은 희망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최 씨는 현재 상주중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문화예술 선생님이다.

북경예술영화학교, 이탈리아 문화예술학교 등 외국에서 영화를 전공해 영화감독의 길을 걷던 그가 선생님이 된 까닭은 2006년 지인에게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소개받으면서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초중고등학교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영화, 국악, 연극, 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한 동심(童心)이 발동했던 걸까. 그는 단박에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수락했다. 그러나 영화교육 수업을 원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었다. 고작해야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하는 수업을 위해 서울에서 지방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래도 그는 아이들에게 영화로 소통하며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다.

경북 상주중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최영익 씨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꿈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의 영화교육 수업은 이론, 감상, 제작으로 진행된다. 그중 초중고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수업은 영화 감상 시간. 단순한 감상에서 벗어난 그의 특별한 수업지도 방법 덕분이다. 그는 영화 속 캐릭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일러준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 보면 열정 샘솟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일 포스티노〉를 아이들에게 꼭 보여줘요. 영화 속 주인공은 작은 섬의 우편배달원에 불과하지만 유명한 시인에게 우편물을 전하면서 그의 감성을 닮아가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 속 주인공은 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찾다가 해피엔딩을 맞이해요. 이런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있어요."

그가 상주중학교에서 처음 가르친 아이들은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그 아이들은 그에게 영화로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의 힘을 새삼 실감케 했다. 공부에 전혀 흥미 없던 아이가 영화교육 수업을 통해 마음을 열고 이젠 태권도 사범의 꿈을 키우며 입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믿는다.

"문화예술교육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찾고 마음을 열어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답보다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창의력도 키워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르침의 열정이 샘솟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문화소외지역에서 문화소망지역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유전자 발굴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마련

농어촌의 외딴 마을과 도시의 달동네 등 문화소외지역이 '살맛 나는 동네'로 바뀌고 있다.
주연은 마을 주민, 감독은 생활문화공동체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들이다.
낙후된 동네를 문화의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바꾼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이강준공공미술연구소

경북 안동시 신세마을은 예술가들뿐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
공공미술을 통해 마을을 환하게 바꿨다.
지난해 벽화그리기 수업 후 담에 벽화를 그리는 초등학생.

#1 경북 안동시 신세마을은 요즘 블로거들에게 사진 찍기 좋은 이른바 '핫 스팟'으로 소문이 났다. 주말이면 동네 골목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젊은이들이 찾아와 활기가 넘친다. "렌즈를 대는 곳마다 바로 작품이네!" 촬영하는 사람들의 감탄사다. 신세마을 풍경, 대체 뭐가 다르기에?
의문은 신세동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싹 가신다. 동부초등학교 입구에서 성진골까지 약 3백50미터가 통째로 '마을 미술관'이기 때문이다. 이 골목 미술관의 이름은 '길섶 미술로'.
먼저 입구에서부터 옥탑방 건물 벽면을 메운 대형 초상화가 한눈에 들어온다. 동네에서 '복덩이 할머니'로 불리는 김화순 할머니와 손자, 옆집 아이가 초상화의 모델들이다.
왼쪽 골목으로 돌아서면 담벼락에 오토바이를 타고 한 손에 '철가방'을 든 중국음식 배달원이 그려져 있다. 길섶 미술로 작업팀이 자장면을 즐겨 시켜먹던 '청반점'의 배달원이란다. 오르막길 담에는 자전거를 배경으로 중년 아저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멋쟁이로 소문난 담 너머 집 주인 얼굴이다. 이들 초상화 모델은 안동 시내에서도 알아보는 스타가 됐다.
골목에는 초상화만 있는 게 아니다. 담벼락에 붙어서 〈오줌 누는 개〉, 담 너머로 안동 시내를 굽어보는 〈진돌이〉, 줄에 매달린 〈줄 타는 고양이〉 등 마을 곳곳의 조형물들이 예기치 않은 웃음을 준다.
동부초등학교 5학년 1반 아이들은 미술 시간에 벽화 그리기 수업을 받은 뒤 학교 담에 그림을 그렸다. 마을 주민들도 붓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안팎에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못마땅해하던 마을 어르신들도 "택시기사도 마다하던 달동네가 싹 달라졌다"고 즐거워한다. 이곳에서 안동대 미술대 출신들과 석 달 내내 작업을 한 이강준공공미술연구소의 이강준 대표는 변화의 증인이다.
"처음 마을에 들어가서 페인트 통을 들고 돌아다닐 때는 초상화 모델 섭외도 쉽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몰래 촬영했죠. 마을 분들과 소통이 되면서부터는 일사천리로 해결됐어요. 나중에는 초상화 모델로 안 써준다고 섭섭해하실 정도였습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공미술 진흥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21개 마을에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기에는 젊은 작가 4백여 명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뒀다.

'담벼락을 마을미술관으로'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난해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소외마을 가꾸기 ▲마을 거점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가꾸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 확대 ▲역사 공간 가꾸기 ▲테마가 있는 공공미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공통점은 마을에 공공미술을 도입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마을에 '랜드마크'가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강원 철원군 월하리는 '달'이 콘셉트다. '달 아래 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을 살려 월하리 마을회관 앞의 옛날 방송 탑을 활용해 달 모양 조형탑을 세웠다.

대학생 '문활'이 대세

"봉사 대신 문화 선물하러 시골 가요"

노인을 찾아가 일가일손(一家一孫)을 맺는 활동도 대학생 문활의 하나다. 경북 영덕군의 농가에서 할머니와 일가일손을 맺은 학생들.

농촌에 '문화배달부'가 떴다. 문화배달부는 농촌에 '농활(농촌봉사활동)' 대신 '문활(농촌 문화봉사활동)'을 가는 대학생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주민의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배달부 사업은 지난 5월부터 1기 10개 팀, 2기 10개 팀이 선발돼 20개 마을로 문활을 다니고 있다.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바쁜 일손을 돕는 농활과 달리 문활은 한 달에 한 번 2박3일 일정으로 현장을 찾는다. 문화배달부 1기로 활동하면서 문활을 주관하는 농촌문화기획단에서 일하는 손소영 씨는 "문활은 대학생들의 장기를 살려 시골마을에 문화를 선물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영상팀에서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도 하는데, 제가 찾아뵙는 93세 할머니는 아들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면서 내내 '건강하라'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어요. 이 할머니와 같은 홀몸노인과 '일가일손(一家一孫)'을 맺어 자주 찾아뵈니 우리가 친손자 손녀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제주 애월읍에서 활동하는 건국대 밴드동아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학교 도서관에서 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을 방문하는 용인대 스케치북 팀은 농사일 사진전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한편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영덕군 창수면에서는 '농촌문화와 함께하는 제3회 대학생 MT 페스티벌'이 열렸다. 9월 대학 개강을 앞두고 술이나 고성방가가 없는 '공정 MT문화'를 실험하기 위한 행사다. 이를 진행한 농촌문화기획단 이정아 씨는 "지역사회에 문화로 기여하는 대안 MT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재활시설인 한빛맹아원 외벽에는 부드러운 숲 그림을 채웠다. 담벼락엔 맹아원 아이들과 작가 등 1백여 명이 그린 타일을 붙였다.

올 들어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성과를 지켜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동네 문화소동' 공모를 통해 당선된 10개 마을에서 8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들의 만남의 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강원 태백시는 옛 동사무소를 탄광마을 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울산시는 '장생포, 고래를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고래 테마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최진영 큐레이터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술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감동이 더 커졌다"면서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성과는 4백여 명의 작가와 3천5백여 명의 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고 말했다.

#2 "아왜나무가 많아나부난 아왜낭목이랜 불렀주."
"(아왜나무가 많아서 아왜낭목이라 불렀어요.)"

지난 8월 21일 제주 서귀포시 월평마을에서 김영호(78) 노인회장이 관광객 30여 명에게 제주 사투리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자 옆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통역'을 해준다. 3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 해설사의 설명도 구성지지만, 통역이 필요할 만큼 낯선 제주 사투리가 마냥 신기한지 관광객들은 연신 질문을 한다.

'월평 이야기길 탐방'은 8월 21일에 시작해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진다. 첫날은 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된 월평풍물대가 돌담길을 돌며 흥을 돋운 뒤 마을 해설을 했다. 올레 7코스와 8코스가 만나는 월평마을의 탐방용 지도 '여기가 월평마을이우다'는 마을 주민들과 시행단체인 '문화도시공동체 쿠키'가 함께 만들었다. 이 지도를 따라 만나는 제주 지방의 전통 초가, 통시(뒷간), 행기소(공동목욕탕), 본향당(제당) 등은 제주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자랑거리다.

초승달 모양의 월평포구에서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온 탐방 팀은 '월평살롱'에 모였다. 월평살롱은 이 마을 특산품인 백합, 한라봉, 구아바차 등을 구경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땅거미가 질 무렵 마을 공터에서 '월평밴드'가 공연을 마치자 박수와 함께 앙코르 요청이 쏟아진다. 월평밴드는 마을의 아주머니, 아저씨가 만든 악단이다.

오는 10월에는 이 밴드의 공연뿐 아니라 사진전, 이 마을의 빈집에 입주해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들의 전시회, 벼룩시장 등을 합쳐 월평예술발표회가 열린다.

서귀포시에서 버스로 30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이 외진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월평, 예술로 물들다'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에게 살맛 나는 동네에 산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활동을 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18개 지역을 시범

8월 21일 제주 서귀포시 월평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이 마을 토박이 어르신에게 해설을 들으며 올레길을 걷고 있다.

지정해 시행했으며 올해는 이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6개 지역을 새로 지정해 현재 모두 19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임대아파트, 서민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철저히 '주민 참여형'이다. 각 지역에 사회적기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회사, 극단, 영화 제작사 등이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과 소통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 주민들이 시선이 처음부터 고울 리는 없기 때문이다.

제주 서귀포시 월평마을에서 2년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문화도시공동체 쿠키의 문주현 실장은 "외딴 마을일수록 외지인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이 차츰 마음을 열면서 물꼬가 트인다"고 말한다. 그는 "문화 프로젝트를 알아서 해달라던 마을 분들이 지금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먼저 낸다"고 반가워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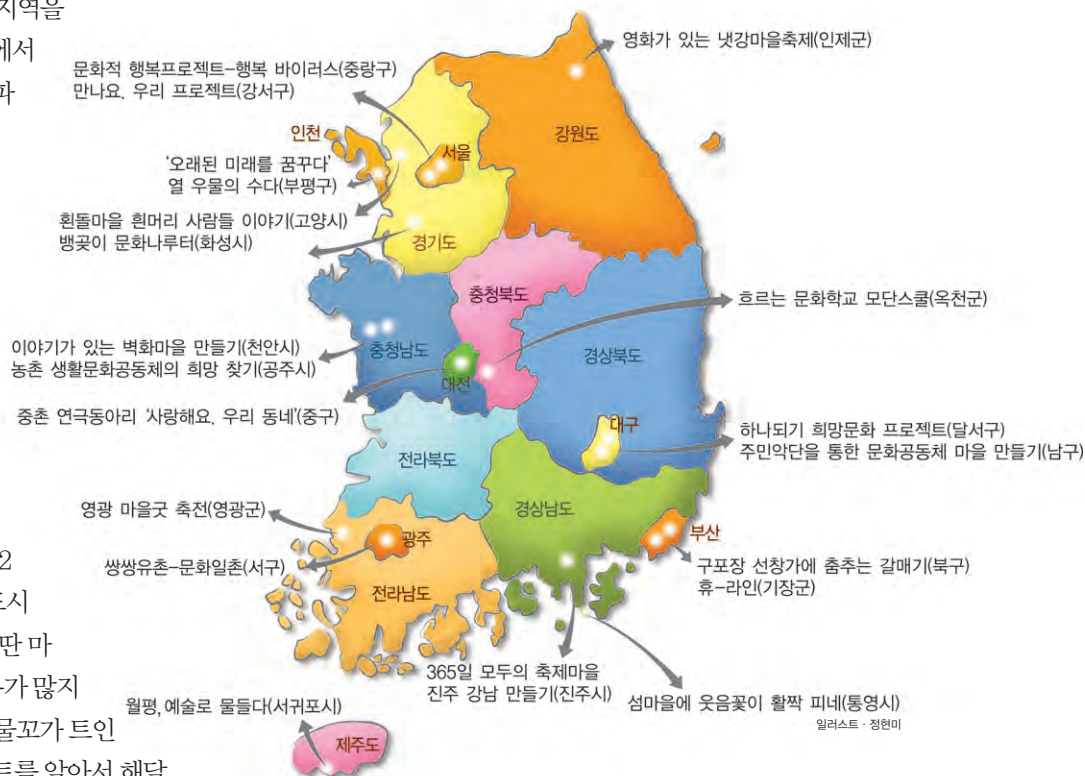
일러스트 · 정현미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은 "그 지역 고유의 '문화유전자'를 발굴해 주민 스스로 삶 속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만나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하게 소통하는 동네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 미술작가단체 '보통 미술 잇다'는 우선 주민들과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만남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방치돼 있던 아파트 복지관을 '만나요. 우리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사람들이 기증한 헌책들이 도서관의 서가를 채웠고, 자연스럽게 독서토론회나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 엄마들은 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품앗이 교육을 시작했다. 일명 '아(파)트 시네마 클럽'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네 사람들이 배우로 출연하는 '마을영화'를 촬영한다.

강원 인제군 냇강마을에서는 70, 80대 노인들이 영화 속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지난겨울 상영된 90분짜리 마을영화 〈살아가는 기적〉에는 노인과 학생 등 마을 주민 1백여 명이 등장해 생생한 마을 이야기를 들려준다.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마을영화제를 여는 등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경기 고양시 백석동 흰돌마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진 전시회를 열었던 노인들이 동네 미니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젊은이들과도 이야기꽃을 피우게 됐다.

경남 통영시의 작은 섬마을 사량도에서는 글을 모르던 노인들이 자작시 발표회를 열고 시화 전시장을 만들었으며 올해는 시 벽화와 시 푯말 등을 추가해 문학체험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신당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인 '좋은사이'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모임도 만들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제목도 흥미롭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은 마을 이름을 본떠 '열우물, 오래된 미래를 꿈꾸다', 부산 북구 화명동은 '구포장 선창가에 춤추는 갈매기', 전남 영광군 영광읍은 '영광 마을굿 축전' 등 각기 개성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blog.naver.com/artezine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www.maeulmisul.org
문화배달부 www.ccmessenger.org

노년층도 적극적으로 문화 향유에 나설 수 있는 각종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다. 서울 성북문화원 연극놀이교실 '희喜낙樂'의 어르신 수강생들이 연극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노년에게 문화예술은 '명약'이에요"

어르신 문화학교·생활문화 전승 등 문화 프로그램 확산

노년층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감각까지 무딘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을 '문화'가 가져다주는 행복으로부터 소외시키곤 했다. 이젠 어르신들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문화 나눔도 실천한다. '문화 상생'의 중심에 선 어르신들을 만났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8월 30일 서울 성북문화원이 개설한 어르신 연극놀이교실인 '희喜(희)낙樂(락)'의 열다섯 번째 연습 시간. 연극 초빙강사가 60~80세에 이르는 나이 지긋한 2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수강생들에게 뜬금없이 각자의 '18번'을 묻는다. 주로 1950, 60년대에 청춘기를 보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요즘 세대에겐 '전설'과도 같은 옛 가요가 줄을 잇는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든다.

"'굳세어라 금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할머니의 노래를 듣던 강사가 자신의 무릎을 '탁' 하고 친다.

"아, 그럼 6·25전쟁을 소재로 한 이야기로 극을 만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야기의 살을 붙이세요."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각자 겪었던 일화들을 털어놓는다. 오래 전 일이지만 기억은 또렷하다. 30분이 지났을까, 이미 한 시간 이상 즉흥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깃거리들이 모였다. 6·25전쟁 중 가장 없는 가족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고, 큰아들이 집안의 기둥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의 세부적인 스토리가 구성된다.

"연극 배우면서 제2의 인생 살아요"

개인사를 꺼내놓은 어르신이 그 역할을 맡고 '스탠바이'. 실제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시대극 촬영만큼이나 분위기는 진지하다. 연습이지만 대사 하나 하나에 진솔한 감정이 실린다. 그렇게 어르신들의 '문화 외도'가 시작됐다.

이처럼 지역문화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확산 추세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원 측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에는 '어르신 문화학교'

94곳, '생활문화 전승' 11곳, '문화나눔 봉사단' 26곳이 선정됐다. 성북문화원의 경우 연극 프로그램의 차별화로 '어르신 문화학교'를 개설했다.

올해 77세인 임화숙 씨는 이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하면서 새롭게 사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 십수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이 결혼 후 분가하면서 자연스럽게 10년 전부터 홀로 살아온 그는 지난 6월 친구의 소개로 '희흠낙樂'에 참가하게 됐다.

연극의 '연'자도 모르고 소질도 없던 그였다. 그러나 2개월여 지난 지금,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열리는 연극교실 수업은 더할 나위없는 생활의 활력소다. '희흠낙樂' 수강생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지만 열성과 체력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직접 해보니 즐거워요. 내가 나를 다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연극에 빠지다 보니 집에 와선 피곤해서 잠도 잘 자게 돼요. 그래서 건강도 지키는 것 같아요."

오는 10월 연극교실이 끝나지만 임 씨는 앞으로도 다른 '어르신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할 꿈에 젖어 있다. 그것이 그에겐 어떠한 첨단 의료 혜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병원 가면 괴롭잖아요.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화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어쩌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겐 '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조영철 기자

요즘 연극대본 외우기에 푹 빠져 있다는 임화숙 할머니.

책 읽어주기·무료 여행 등 노년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후원과는 별도로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지난 5월엔 노년층에게 소중한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북스카우트(Book Scout)' 80명을 선발해 2인1조로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 서울 소재 노인복지시설 40여 곳을 주 1회 방문해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6월 말까지 펼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 대상 책 읽어주기'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엔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홀몸노인을 상대로 '브라보 실버 라이프' '홀로 어르신의 겨울 나들이' '즐거운 스파여행' 등 다양한 테마의 무료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농촌 어르신에게 도시 어린이를 손자, 손녀로 맺어줘 문화 효도를 하게 하는 '일가일손(一家一孫)' 캠페인을 펼쳤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곳곳을 배경으로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를 여는 문화 이모작 사업도 벌였다. G 글 · 유재영 기자

조태권 성북문화원 원장

"예술 체험활동으로 삶의 활력 찾아요"

성북문화원

어르신 연극놀이교실 '희흠낙樂'을 연 계기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점점 소외되고 있다. 그들 스스로는 물론 가족,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연극놀이교실을 열었다. 성북구의 옛 모습과 본인의 삶에 대한 회상을 매주 수업에서 풀어내고 이를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이야기로 극을 재구성해 또 다른 이웃과 나눔의 기회를 갖고자 했다. 참여하는 어르신은 단순히 교육 수혜자가 아니라 창조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어르신들이 통합예술 체험으로 정신적 만족을 얻고 삶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노년층이 감정적, 정서적 욕구를 해소할 길이 많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져 우울한 노후를 보내거나 최악의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연극교실에선 '희흠낙樂'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타인에게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의 주된 방식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행하게 하는 것과 그것을 서로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상호지지'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반응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펼치지 못한 자신의 끼와 이야기를 이번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수강생들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약간의 승부욕도 생겨나 현재는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실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대에 서는 기회도 있을 듯하다.

10월에는 현재 수강 중인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10월 14일성북문화원 수강생 작품발표회가 기획돼 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관내 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공교육만큼이나 중요성이 크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가족, 사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들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해 장애인 맞춤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적장애인 미술대전.

"숨겨진 재능 발휘 장애가 없도록"

'함께 누리' 지원 대폭 확대 등 문화기본권 보장에 온 힘

장애인들은 문화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각종 문화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문화 사각지대로 밀려나기 일쑤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유의 창작 및 표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합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인 최지용(23) 씨. 어릴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그가 요즘은 자신의 얼굴 그리기에 몰두한다. 거울에 비친 얼굴 주름까지, 그것도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그가 유독 자화상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다.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때문이다. 최 씨는 소녀시대를 만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일생일대'의 꿈이다.

9월 2일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적장애인 미술대전 전시회장엔 최 씨가 그린 '내 얼굴' 그림이 심사위원상 작품으로 당당하게 걸렸다. 그는 자신의 그림 옆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마치 소녀시대와 만난 것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함께 누리' 사업에 29억원 지원

최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시회를 무척 기다렸다. 전시회에 소녀시대가 꼭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며 기뻐했다.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박세종(16) 군은 엄마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경을 실감나게 그렸다. 집 주변의 은행과 교회도 실제 풍경의 색채를 그대로 살려 표현해냈다. 마커를 사용해 건물 테두리를 그은 굵직한 데생의 어우러짐이 고급스러운 일러스트를 보는 느낌을 갖게 한다.

박 군에게 이 그림들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본인이 정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희망은 대학에 진학해서 아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된 데엔 눈물 나는 사연이 숨어 있다.

박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폐 증세를 보인 후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그 이후로 아빠를 잘 그리고 싶은 것이 아들의 꿈이 됐다"고 말한다. 미술대전 전시회가 아니었다면 그림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려는 박 군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적장애 2급인 김대현(23)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다.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에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묻어난다. 그는 이번 미술대전에서 입상하면서 본인의 창작 능력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어려운 발성임에도 미래의 꿈을 또박또박 전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이탈리아의 세계적 디자이너)의 이탈디자인을 대한민국 상품에 그려 넣고 싶어요."

장애인 예술가·예술단체에 최대 3천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장애인들의 문화적 재능을 발굴하고 그들의 재능과 희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중 이번 대한민국 지적장애인 미술대전은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으로 추진 중인 16개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함께 누리' 지원사업 중 하나다.

장애인의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함께 누리 지원사업엔 올해 2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9억원에서 10억원의 예산이 늘었을 정도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함께 누리 지원사업 가운데서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릴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정재우 주무관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문화 접근성 확대 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특히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3차 공모까지 진행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사업을 주관하며 문학(시낭송회, 구연동화 등), 시각예술(전시, 창작참여), 연극(뮤지컬, 마임, 인형극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음악, 전통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창작 프로그램을 보유한 장애인 예술가 또는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도서관 구축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에 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자재도 개발 중이다. 이미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디지털 음성도서(Digital Talking Book)를 만들 수 있는 저작도구도 지난해 9월 개발했으며, 장애인 전문 미술교재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인의 문화 향수권 보장을 위한 저작물 접근 강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포럼을 갖고 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장애인 단체 등이 발굴한 장애인 눈높이 사업도 사안에 따라 신규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될 겁니다." 지적장애인 미술대전 입상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윤두식, 최지용, 박세종, 김대현 씨.

'문학 소통' 도서관으로 놀러와!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 통해 작가와 독자 만남·영상 상영

도서관이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 책만 읽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과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문학나눔추진반에서는 우수문학도서 작가가 도서관을 찾아가 독자를 만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시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 '김종광 소설가의 문학특강'에서 독자들이 작품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참'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에는 수박 냄새가 가득했다. '이정록 시인과 동시로 놀자'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이 시인과 수박화채를 나눠 먹고 수박에 대한 동시를 지었다. 평소 책보다는 뛰노는 것을 더 좋아했던 개구쟁이들도 이날은 진지하게 동시 짓는 일에 빠져들었다.

198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 시인은 2001년 김수영문학상, 2002년 김달진문학상을 받았으며 시집 〈정말〉 〈제비꽃 여인숙〉, 동화책 〈귀신골 송사리〉 〈십원짜리 똥탑〉, 동시집 〈콧구멍만 바쁘다〉 등을 냈다. 그의 다섯 번째 시집 〈의자〉는 한국도서관협회의 2006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

충남 홍성이 고향인 이 시인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 들려주고, 동시를 지어 보여주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격려했다. 아이들은 계속 그의 주위를 맴돌며 "아저씨, 언제 또 와요?" 하고 물었고, 이 시인은 다음에 꼭 다시 도서관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인과 아이들의 만남은 한국도서관협회 문학나눔추진반이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9월의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이다. 우수문학도서 작가들이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찾아가 독자를 만나는 것이다. 독자는 책을 읽은 소감이나 작가에게 궁금했던 점을 묻고 작가는 글쓰기를 지도하거나 문학작품을 낭송한다. 또 문학 토론을 벌이거나 문학영상을 상영하기도 한다.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는 곳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1동 '마중물도서관'에서 열린 '아빠와 도서관나들이' 행사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내용을 투명우산에 그리고 있다.

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좋은 책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 한국도서관협회는 매 분기 발간되는 문학도서 중 25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 1종당 2천 부씩 구입해 전국 2천3백여 곳의 마을문고, 대안학교,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등에 보내는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5년부터 계속돼온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정서 함양과 문화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서관을 독자와 작가가 직접 만나 문학을 이해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전국 14곳의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아동센터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소박하지만 자발적인 문학 향유활동이 이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도서관협회, 지역 작은도서관 등에 우수문학도서 보급

실제로 지난해 프로그램이 시행됐던 충남 공주시 봉현방과후공부방 학생들은 초대작가였던 소설가 전성태 씨의 단편소설을 촌극으로 만들어 공연했다. 전 씨는 "아이들 특유의 쑥스러움과 당돌함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친근한 공연이었다"며 "잃어버린 유년기로 나를 이끌었던 연극"이라고 감탄했다.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은 대도시에서 열리는 문학행사가 주로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돼 지역과 무관한 유명작가를 초대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 작가가 이웃의 독자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소설가 이순원 씨는 "대형서점에서 열리는 작가와의 대화는 책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문학나눔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과 삶과 문학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자 작업을 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은철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은 "지역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문학의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지역 문인들이 같은 지역 독자들을 마주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문학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우리 동네 문화 공간

'만능 도서관'에서 문화격차 해소

시각장애인 김정수(가명 · 43)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1Q84〉 〈엄마를 부탁해〉 〈넛지〉 등 서점가를 달궜던 베스트셀러를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통해 들었다. 김 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청취하는 책이 월 평균 7권 정도 된다"며 "주위에서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는 부탁도 종종 받는다"고 말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LG상남도서관이 2006년 선보인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다.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서버에 접속해 음성 도서를 내려받아 들을 수 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음성도서는 4천5백여 권으로 신간, 베스트셀러, 전문도서, 취업준비서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5천3백명의 회원이 9만1천6백90권의 도서를 내려받아 이용했다. 회원 1명당 1년에 17.3권의 도서를 내려받아 이용한 것으로 일반인의 연평균 독서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식정보에서 뒤떨어지기 쉬운 장애인, 저소득층,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늘리는 것은 문화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누구나 책과 도서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5백14억원을 투입해 1백22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64억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해 낮에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국 2백56개 기관의 야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성도서나 점자책 등 대체자료 제작과 보급을 확대하고, 대체자료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 고령자를 위해 서체가 큰 책을 보급하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1천여 개 '작은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해 디지털 원문정보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은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김해시

문화체험 열기만 가져오세요

국립국악원·국립중앙박물관 등 무료 공연·전시 프로그램 풍성

정부는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늘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연이나 전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창경궁의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의 〈토요가족음악회〉, 국립극장의 〈토요문화광장〉,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설 전시회가 대표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무료' 문화체험 여행을 떠나보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30대 주부 김나리 씨는 지난 8월 중순 초등학생 아들 승리 군을 데리고 서울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어릴 적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승리 군에게 대영박물관의 소장품을 전시한 〈그리스의 신과 인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횡재'를 했다. 관람을 마치고 우연히 들른 상설전시관 등에서 삼국시대 유물, 조선시대 회화 등을 무료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교과서로만 만났던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를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관람료 부담이 없으니 앞으로는 아이와 자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 군은 "그리스의 조각상들도 훌륭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정교하고 화려한 신라시대 금관과 가야시대에 입었던 철제 갑옷을 보면서 조상들이 자랑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고가의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에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하는 공연, 전시회를 항상 마련하고 있다.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조상들의 문화유산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전시한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상설전시관 등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유물을 보관한 아시아관도 마찬가지다.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유물은 선사·고대관 신라관에 전시된 천마총 금관과 허리띠다.

1973년 발굴된 천마총 금관은 이듬해인 197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신라명보〉 특별전에 출품된 이래 첫 서울 나들이다. 신라의 황금문화를 대표하는 이들 유물은 내년 2월 13일까지 전시된다.

상설전시관 1층 '역사의 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한창이다. 〈빛과 시간이 머무는 곳, 사진에 담은 한국 세계문화유산〉이 그것이다. 김대벽, 안장헌, 백종하 등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들의 작품으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전시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토요일에 열린마당을 찾으면 〈토요가족음악회〉도 감상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되는 이 음악회는 박물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깨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편안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음악에 국한하지 않고 마술쇼, 비보이, 탭댄스, 현대무용,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8월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시민이 관람했으며 소녀시대, 2AM 등 대중가수부터 동춘서커스단, 태권도시범단 등에 이르기까지 1백여 개 팀이 출연했다.

국립중앙박물관 ☎ 02-2077-9000 www.museum.go.kr

라벤타나

남산 자락에서의 토요문화광장

국립극장

서울 한복판 남산 자락에 자리한 국립극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사방이 탁 트인 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토요문화광장〉을 연다.

무대와 객석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도 좁힐 수 있는 친근함이 매력인 〈토요문화광장〉은 1993년 시작된 이래 18년간 37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간 국립극장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B국민은행이 후원함으로써 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9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펼쳐지고 있다. 가을의 문턱인 9월 11일에는 젊음과 열정의 무대인 〈홍대 놀이터를 옮기다 3탄〉이 마련돼 있다. 실력파 인디밴드 '소규모 아카시아밴드' '라벤타나'가 출연할 예정이다.

9월 18일에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딴따라땐스홀의 아빠와 함께 춤을〉을 통해 로큰롤 스윙댄스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9월 25일에는 여성 타악 그룹 '드럼캣'이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펼친다.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사운드를 뿜어내는 드럼캣의 공연을 끝으로 올해 〈토요문화광장〉은 막을 내린다.

국립극장 ☎ 02-2280-4114 www.ntok.go.kr

송영수 작 〈생의〉

조각·회화·사진이 한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9월 말까지 제3~6전시실 2, 3층 화랑에서 〈컬렉션, 미술관을 말하다〉전을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전시회는 미술관 소장품 6천5백여 점 중 엄선한 조각, 회화, 한국화, 사진 등 2백7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회화의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조각의 권진규·김정숙, 한국화의 이상범, 사진의 임응식 등 한국 현대미술 각 부문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1950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변화도 살필 수 있다.

제4전시실에서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해 〈잊혀진 전쟁, 현실의 분단〉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12월 26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는 미술관 컬렉션 중 전쟁과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회화, 조각, 드로잉 작품 57점을 선보이고 있다. 매일 오후 1시와 4시에는 전시설명회도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 ☎ 02-2188-6000 www.moca.go.kr

야외무대에서의 음악회

국립국악원

〈창경궁의 아침〉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국립국악원 야외무대 별맞이터에서는 전석 무료 공연인 〈우면산 자락 초록음악회〉가 매월 한 번씩 일요일 오후에 열린다. 매회 2천명이 넘는 관객이 찾는 인기 공연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음악회는 5월부터 10월까지(6월 제외) 총 5회에 걸쳐 감사, 재미, 시원함, 사랑, 행복을 주제로 펼쳐진다. 9월 26일 오후 4시에는 판소리와 창극, 가야금병창이 함께하는 해학의 한마당을, 10월 10일 오후 4시에는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아름다운 노래잔치를 선보인다.

국립국악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창경궁 명정전 뒤뜰에서 〈창경궁의 아침〉이라는 음악회도 열고 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창경궁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 오전 9시 이전에 한적한 창경궁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거닐며 창경궁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음악회 역시 무료다. 다만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다. 각 공연 관람객은 5백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G

국립국악원 ☎ 02-580-3300 www.gugak.go.kr

글 · 김지영 기자

〈한국의 국토정책〉 영문 책 펴낸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우리 국토정책은 해외서 주목하는 성공적 모델"

최근 국토연구원은 〈Korea's Territorial Policy(한국의 국토정책)〉라는 영문 책을 코리아헤럴드와 공동으로 펴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 광역경제권 육성, 새만금 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는 국토정책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집필진은 국토연구원 박양호(59) 원장과 연구진, 관련 전문가들이다.

지난 30여 년간 국토정책 연구와 집행에 몸담아온 박 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5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경제발전 정책과 국토발전 정책이 두 수레바퀴 구실을 했다"며 "우리 국토정책은 해외 각국이 주목하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성과와 현황을 집대성한 이 책이 한국 국토정책과 기술 수출의 세일즈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토개발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이른바 '인벡(INBEC)' 산업과 같은 부가산업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벡이란 정보기술(IT), 나노, 바이오, 에너지와 환경, 콘텐츠와 문화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조합한 말로,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국토정책〉 영문 책(아래)에서 해외에 귀감이 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국토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인벡'산업"

박 원장은 한 예로 4대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첨단 IT, 태양광, 지리정보시스템 등이 집적된 인벡산업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강이 강다워지려면 강에 맑은 물이 늘 풍부하게 흐르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21세기 새로운 황금인 물을 관리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인벡산업 육성효과도 높습니다."

박 원장은 자신이 기고한 1장 '한국 국토정책의 역사와 향후 방향'에서 한국 국토개발의 역사를 ▲1960년대 초기 산업화시대 ▲1970년대 산업화의 성숙기 ▲1980년대 지방화시대 ▲1990년대 세계화시대로 분류하고 단계별 국토정책을 해설했다. 이어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글로벌 국토전략'을 소개하며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육성 ▲녹색 국토조성 ▲주거복지 및 토지 관리 선진화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국토정보화 ▲한반도 및 글로벌 국토전략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2020을 향한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이 계획이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성장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단 것 같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전 세계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몰려오는 한반도 대(大)국토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입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굿바이~ 아날로그 TV방송”

울진군, 전국 최초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

1961년부터 50여 년간 지속돼온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9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막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인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통해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이후 아날로그 TV방송을 전국적으로 종료하는 일정도 확정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에서 “울진군 디지털 방송 전환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디지털 방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디지털 TV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1일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TV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이 첫 번째 디지털 방송 전환의 주역이 됨으로써 이 지역 2만3천여 주민들은 한층 선명하고 실감나는 디지털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후 30일간 KBS1 TV를 통해 안내자막을 방송한다.

저소득층 컨버터 무상 제공·디지털TV 구매비용 보조

울진군에 이어 10월 6일에는 전남 강진군, 11월 3일에는 충북 단양군, 내년 6월 29일에는 제주도에서 각각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울진군과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등을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기(컨버터) 무상 제공과 보급형 디지털TV 구매 보조 등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제주도를 제외한 시범 지역에서 아날로그TV로 방송을 직접 수신하고 있는 1천8백 가구 가운데 99퍼센트의 가구가 디지털 컨버터를 신청해 79퍼센트에 이르는 가구에 지원을 완료했으며, 디지털TV 구매 보조는 저소득층 정부 지원 가구 중 4퍼센트인 36가구를 지원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은 정부가 직접수신 가구 중 일반 가구에는 컨버터를 임대해주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등 저소득층에는 컨버터 1대를 무상 제공하거나 디지털TV 구매비용 10만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 국민의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62.8퍼센트로 지난해 말 55.8퍼센트보다 7.0퍼센트 포인트 높아졌다. 디지털TV 보급률은 61.0퍼센트로 지난해 말의 55.1퍼센트에서 5.9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G

글·이혜련 기자

"빼앗긴 조국 되찾기 위해 이 한 목숨 두렵지 않다"

이태룡 박사 〈호남 의병장 전해산〉 펴내

〈호남 의병장 전해산〉 이태룡 엮음 / 삼조출판사 · 상하권 각 1만원

올해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 번 아로새기는 특별한 해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 8월 29일의 경술국치(庚戌國恥), 한일강제병합 1백 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글픈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애쓴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수한 의병(義兵)들도 이에 포함된다.

의병은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입을 막았다. 그들의 의지는 공고했다. 따라서 한말 생겨난 의병도 당연한 애국적 결의의 결과였다.

25년째 한말 의병 연구에 몰두하며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온 이태룡 박사가 올해 경술국치 1백 년을 맞아 의병의 업적과 절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저서 〈호남 의병장 전해산〉을 펴냈다. 저자는 많은 의병 중에서도 특히 죽음을 불사했던 호남 의병장 전해산(全海山 · 1878~1910)의 삶에 주목했다.

총 2권인 이 책은 전해산 선생이 의병 투쟁 당시 손수 쓴 〈진중일기〉와 〈한국독립운동사〉를 바탕으로 상권을 만들고, 광복 후 친족과 장수향교가 펴낸 〈해산창의록〉을 번역한 것과 전해산 선생이 의병장에 추대된 경위와 그의 의병투쟁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권에 수록했다.

본명 기홍(基泓), 전북 임실 출생인 전해산 선생은 나주, 영광 등 전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투쟁을 전개했다. 가난한 유생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에 심취한 그였지만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탐독하며 일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섰다.

그는 해산한 군인과 포수들을 모아 의병부대인 '대동창의단(大同倡義團)'을 만들었다. 의병부대는 한국 군대의 전통적 편제를 갖추고 일원적인 지휘계통으로 구성됐다. 이후 심남일, 김영엽, 오성술 등과 호남 의병의 연합조직을 결성했다. 전해산 선생은 1908년 겨울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을 탄생시켰고 대장으로 추대됐다. 당시 전라도에서 활동하던 11개 의병부대가 참여한 큰 규모의 부대였다.

"경술국치 1백 년 맞아 의병들 공적 찾아 이름 기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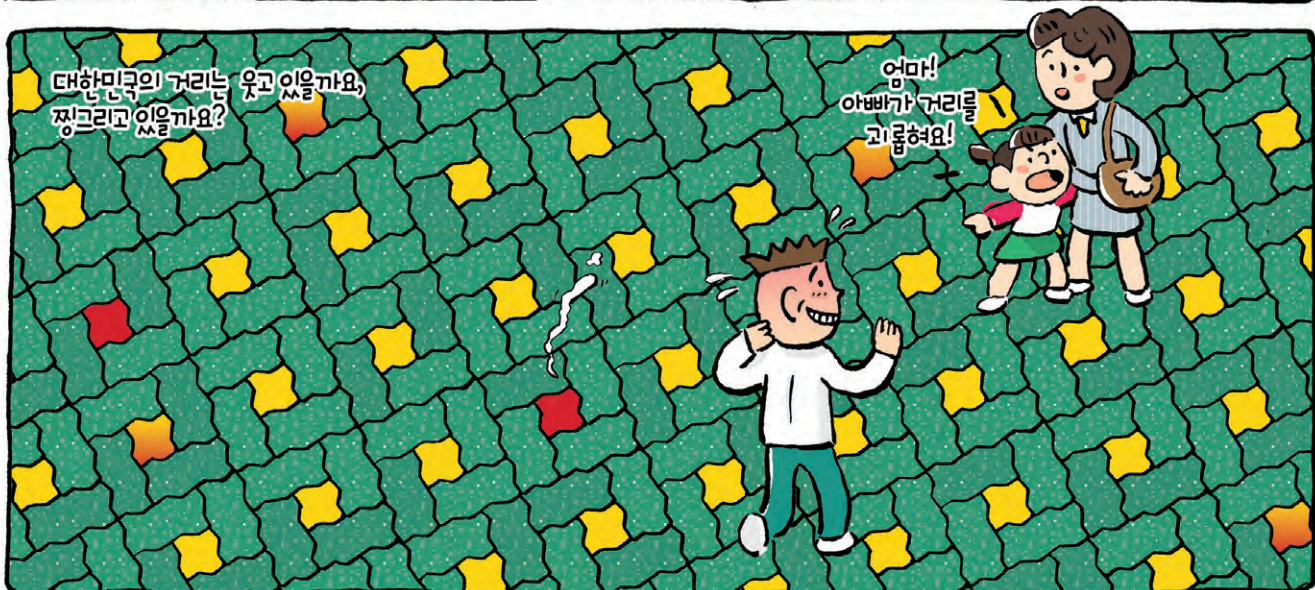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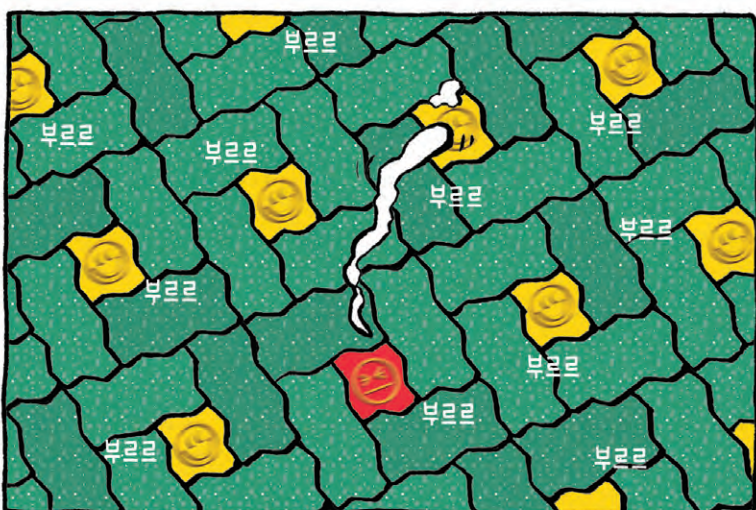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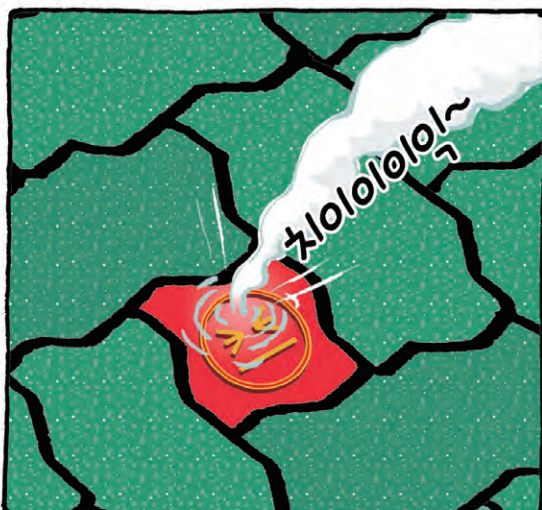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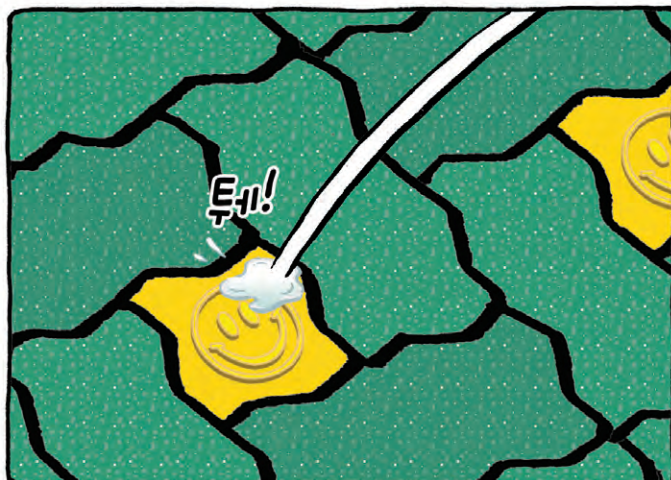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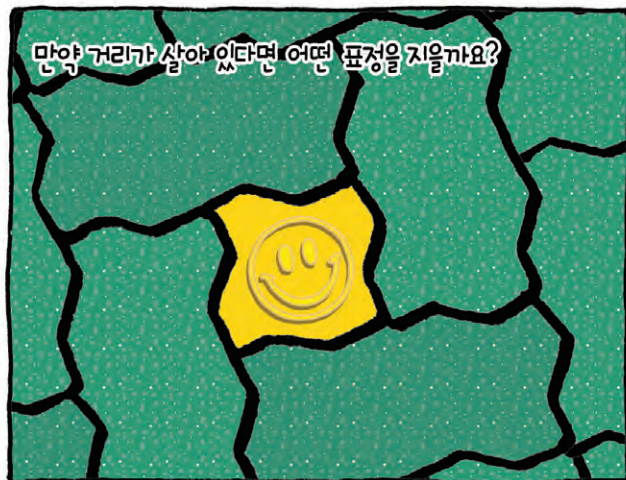
하지만 한말 의병활동은 쉽지 않은 행보였다. 저자는 "과거엔 무기 수준이 비슷했기에 군인과 민간인 정도의 싸움에 비할 수 있었지만 창이나 칼, 화승총을 든 한말 의병이 6연발 총과 기관총을 휴대하고 기마병까지 동원된 일본군을 상대로 승부를 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며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못할 줄 알면서도, 일본군을 치러 나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한 목숨 바쳐 일어섰던 그들이 한말 의병"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해산 선생은 1909년 4월 전투에서 잇따라 패한 뒤 재기 불능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지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한일강제병합을 차마 막지 못한 채 1910년 8월 23일, 대구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석영 한말 호남의병장 추모위원회 위원장은 "의병들은 나라를 잃으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예견한 선각자들이었다"며 "경술국치 1백 년을 맞기까지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의병들의 공적을 하루빨리 찾아 민족의 이름으로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거리가 살아 있다?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거리도 아파합니다. 침을 뱉지 말아주세요.

가을, 철학이란 책갈피를 만지작~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답다는 가을이 찾아왔다. 늦더위마저 말끔히 사라진 가을 날씨에 푹 빠지다 보면 절로 사색에 잠긴다. 이럴 때 가을 경치를 호젓이 누리며 책을 읽는다면 끝나버린 여름휴가도 그립지 않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독서의 계절, 가을과 함께하면 좋을 문화, 예술, 역사 분야의 추천도서 10권을 선정했다.

그중 눈에 띄는 책은 박완서 작가가 4년 만에 내놓은 에세이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다. 작가는 올해를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해로 여긴다. 등단 40주년을 맞이했고 그의 문학의 시발점인 6·25전쟁 발발 60주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이 책에서 그는 노(老)작가의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하고 닿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찬찬히 담아낸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 박수근 화백 등 자신과 이어진 인연과 사랑에 아파하며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을 추천한 신경숙 작가는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찾아온 '전쟁'이라는 불행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써온 그의 글들을 통해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세계 유명 철학자 14인의 이야기를 담은 〈하버드, 철학을 인터뷰하다〉는 철학을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하버드대 학부생들이 만드는 철학잡지 〈하버드 철학리뷰〉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이탈리아 기호학자이자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등 철학자들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공부는 왜 하는가'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철학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특히 이 책에는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정치철학가 존 롤스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 특별하다. 그는 평생 딱 세 번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중 하나인 〈하버드 철학리뷰〉와의 인터뷰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정의론〉의 역사적 맥락, 철학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답변 등 그의 다양한 삶의 철학을 털어놨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철학고전' 읽기를 통해 오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추천사에서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www.kpec.or.kr

후세 다츠지
오오이시 스스무 외 지음 · 임희경 옮김 · 지식여행 펴냄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한 일본인 후세 다츠지의 삶을 다뤘다.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춤의 유혹
이용숙 지음 · 열대림 펴냄
살사, 자이브 등 라틴댄스부터 탱고, 왈츠에 이르기까지 춤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책.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유쾌한 공생을 꿈꾸다
요로 다케시 지음 · 황소연 옮김 · 전나무숲 펴냄
곤충학자를 꿈꾸다가 해부학자가 된 '곤충쟁이' 노교수가 쓴 환경 에세이.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룽산으로의 귀환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 이준갑 옮김 · 이산 펴냄
중국 명나라 말에 태어나 청나라 초에 죽은 장다이(張岱)라는 인물을 통해 명말청초 중국의 역사를 들려준다.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장이 된 교수, 전원일기를 쓰다
강수돌 지음 · 지성사 펴냄
5년 동안 시골마을 이장을 지낸 대학교수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방법을 제시했다.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버드, 철학을 인터뷰하다
〈하버드 철학리뷰〉 편집부 엮음 · 강유원 외 옮김 · 돌베개 펴냄
하버드대 학부생 편집자들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적 철학사상가들을 만난 인터뷰를 엮은 책.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달 샤베트
백희나 글 그림 · 스토리보울 펴냄
녹아내린 달로 샤베트를 만들어 먹는다는 기발한 이야기를 환경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동화책.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번역투의 유혹
오경순 지음 · 이학사 펴냄
우리말과 글에 스며든 일본어의 실상을 파헤친 책.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피터 L. 번스타인 지음 · 김승욱 옮김 · 작가정신 펴냄
하나의 금속에 지나지 않는 금이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든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인류 경제사를 조명했다.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지음 · 현대문학 펴냄
사람과 자연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 시대의 이야기꾼 박완서의 산문집.
추천 신경숙(작가)

마음가짐

글과 그림 · 최영순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 새뮤얼 울먼(미국 시인)

친정엄마와 떠나는 특별한 여행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지난해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엄마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의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이 9월 10일부터 다시 막을 올린다. 지난해 초연 관객 점유율 84퍼센트, 티켓 판매 1위, 관람객 투표 1위(티켓파크), 총 관람객 13만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엄마와 딸이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연극으로 자리매김한 바로 그 작품이다.

이 연극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딸 미영과 미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엄마 최 여사가 함께 보내는 2박 3일간의 이야기다. 갑작스럽게 친정을 찾아와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미영. 평소와 다른 미영의 행동에서 딸의 건강이 심상찮음을 감지하는 엄마. 이들 모녀가 지난날을 회상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은 현대인이 잊고 살았던 가족애와 엄마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모녀 역은 초연을 성공으로 이끈 배우 강부자와 전미선이 그대로 맡는다.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뜨거운 모성애를 지닌 김탁구의 엄마로 열연 중인 전미선은 이번 작품에서 더욱 깊어진 내면 연기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최근 연극 〈오구〉 공연을 마친 '국민 친정엄마' 강부자는 "관객들과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공유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곳이 무대"라며 연극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 공연에는 두 배우뿐 아니라 앙코르 공연에 참여했던 차유경이 엄마 역으로, 초연부터 출연해온 이서림이 딸 미영 역으로 더블 캐스팅됐다. 객석을 또다시 눈물로 적실 신구(新舊) 모녀의 연기 대결이 자못 기대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9월 10일~11월 12일, 화·목요일 오후 8시, 수·금요일 오후 3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추석연휴 9월 20일 오후 8시, 9월 21, 23일 오후 5시 공연, 9월 22일 공연 없음) **장소** 성균관대 새천년홀 **관람료**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33-7203 www.mom23.co.kr

● 전시회 '포뮬러 원-위대한 디자인 경주'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인 '포뮬러 원 그랑프리(Fomula One Grand Prix)', 일명 F1에 대해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경주에 참여했던 전설적인 차들과 선수들의 의복도 전시된다.

일시 9월 8일~10월 31일 오전 11시~오후 8시(매표 마감 오후 7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 2, 3전시실 **관람료** 성인(만 19세 이상) 1만2천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 1만원, 초등학생 및 유아(만 4~12세) 8천원, 장애인 6천원 **문의** 02-580-1705 www.sac.or.kr

●● 연주회 〈그랜드 이집트 앤 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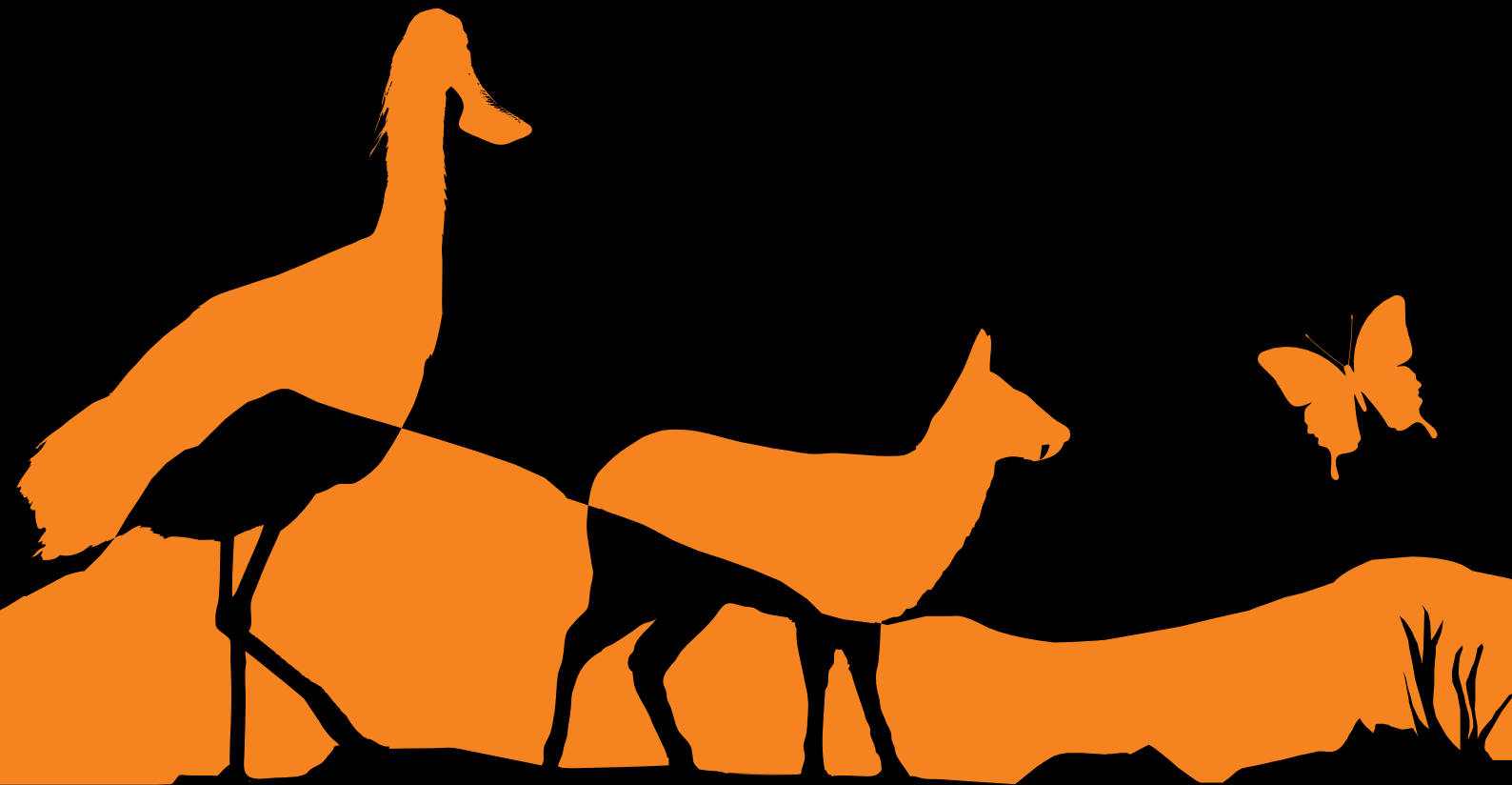
이집트 국립오케스트라가 코다이의 협주곡, 오페라 〈아이다〉의 수록곡 등을 선사한다.
일시 9월 11일 오후 7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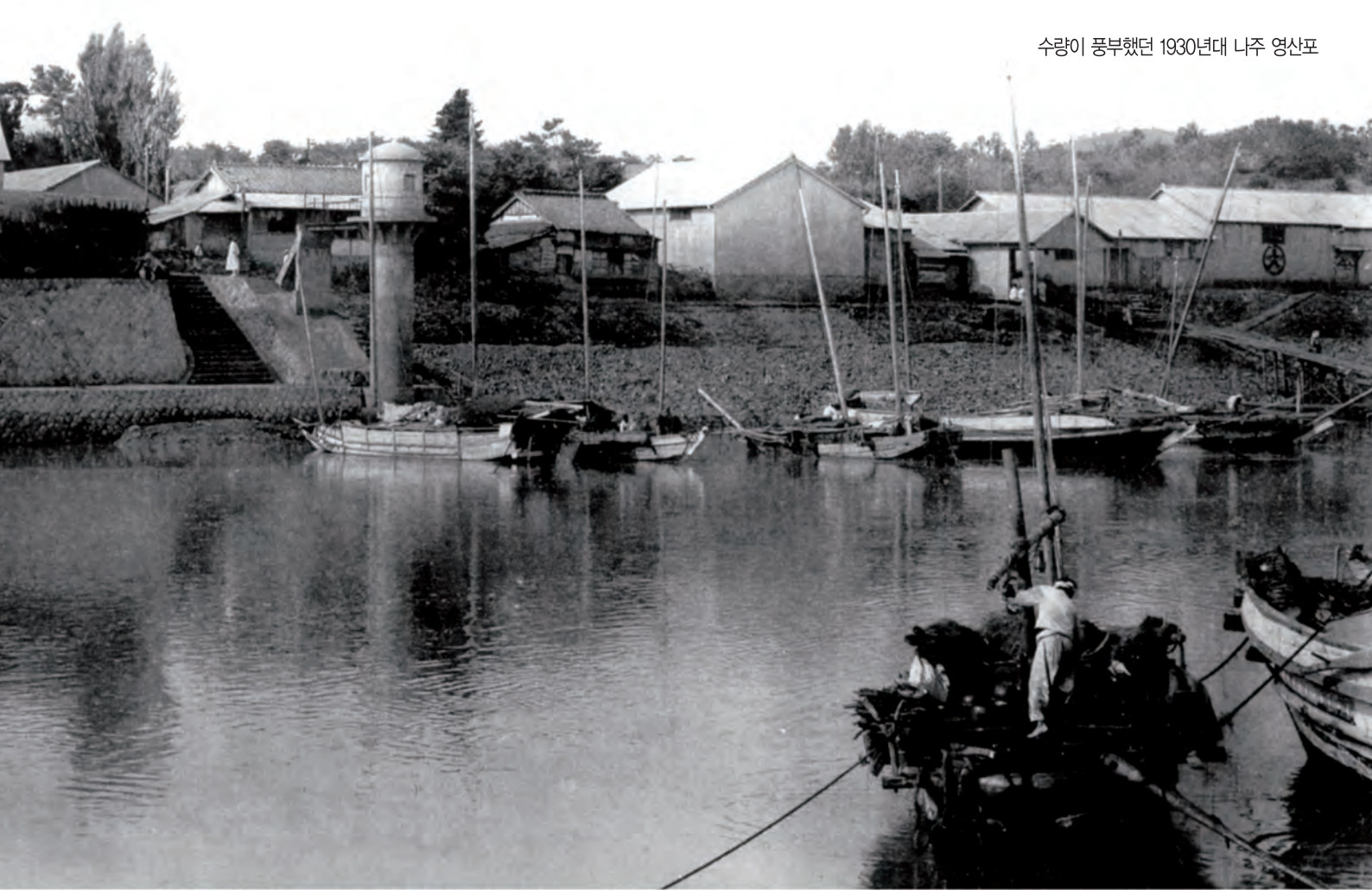
2010

한국생태관광 사진공모전

2010.8.25~10.3

한국의 생태경관, 생태자원, 생태관광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표현하는
사진작품을 공모합니다.

응모주제	생태관광과 관련된 생태자원, 생태경관을 주제로한 사진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사업지를 소재로한 생태관광사진
응모기간	2010년 8월 25일~10월 3일 40일간
시상내역	대상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명 :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 :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5명 :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상 상금 30만원 입선 30명 : 상장과 상품
접 수	홈페이지 http://contest.ecotourism.or.kr
문 의	한국생태관광협회 02.723.8677

주 최 한국생태관광협회 ecotourism Korea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